

1920년대 토론회의 문화사 (1)*

- 식민지 대중미디어로서의 1920년대 토론회의 배경과 주체

유 승 환**

차 례

1. 연구의 목적과 연구사 검토
2. 식민지 대중미디어로서의 1920년대 토론회의 고유성
3. 연구 자료 및 연구의 범위
4. 3·1 운동 이후 공론장의 변화와 청년회 운동으로서의 토론회
5. 대도시 토론회의 상업화와 미디어 이벤트화
6. 토론회의 연사와 청중, 식민지 대중 미디어로서의 1920년대 토론회
7. 1920년대 토론회의 유형
8. 여성의 토론회 참여의 양면성
9.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신문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구축한 1920~30년대 토론회 개최 기록 목록을 중심으로, 1920년대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 성행했던 토론회 문화를 실증적으로 재구성하는 한편, 1920년대 토론회 문화를 식민지 대중들의 의사와 감정, 앓들이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식민지 대중미디어로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A8071303).

** 서울시립대학교 부교수

서 의미화하려는 연속적 시도의 일부로서, 특히 1920년대 토론회 문화의 배경과 주체를 규명하려 했다. 1920년대 토론회 문화는 그간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이는 무엇보다 1908년 이후 정치적 토론이 봉쇄된 상황에서 1920년대 토론회 문화의 중요성이 과소평가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20년대 토론회는 3·1 운동 이후 새로운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발흥한 청년회 운동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로서, 무엇보다 지적·문화적 위계의 아래쪽에 위치한 대중들의 직접적 발화가 이루어지고, 또한 대중들의 집단적 감정이 표출될 수 있었던 불온한 소요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식민지 시기 대중에게 주어진 유력한 대중미디어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실제로 1920년대 토론회의 다양한 유형들 속에서, 무산 노동계급이나 여성들의 토론회 참여는 매우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점에서 토론회는 교육을 위한 충분한 물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식민지 조선의 하위주체-대중들에게 교양과 교육의 형식이자, 이들의 집단적 의사와 감정을 형성하고 확인하는 계기로서 전유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토론회 문화에 대한 연구는 1920년대 식민지 대중들의 주체성 및 의식·감정에 접근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주제어: 1920년대, 토론회, 3·1 운동, 청년회 운동, 식민지 대중미디어

1. 연구의 목적과 연구사 검토

이 글은 1920년대 식민지 조선 사회 전역에서 성행했던 토론회 문화의 실상을 실증적으로 재구성하는 동시에 1920년대의 토론회를 식민지 대중들의 의사와 감정, 앞 등이-때때로 ‘불온’하게-교환되는 식민지 대중미디어로서 의미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20년대 토론회 문화의 배경, 주제, 형식, 주제, 발화의 내용과 형식, 검열취체, 토론회에 대한 기억

과 회고 및 문학적 재현 등이 두루 논의되어야 하겠으나, 여기서는 우선 1920년대 토론회 문화를 바라보기 위한 기본적인 연구의 시각 및 관련 연구자료의 소개와 함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1920년대 토론회 문화의 배경과 주체의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3·1 운동 직후 1920년대 초중반의 식민지 조선 사회는 구술적 미디어의 전성기였다. 한 연구의 표현을 빌린다면 “이른바 문화정치가 시작된 1920년대는 분명 강연회의 시대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¹⁾ 물론 강연회는 이 시기 가장 주요한 구술적 미디어 중 하나였지만, 1920년대는 또한 토론회의 시대이기도 하다. 여기서 말하는 토론회란 1920년대 당시 청년회 등이 주도했던 바, 특정한 주제에 대한 가부편(可否便) 연사의 경쟁적 교차 토론을 시행했던 공개적 집회를 의미한다. 지금의 시점에서 여러 목적으로 시행되는 공개토론회와도 큰 차이가 없는 그러한 토론회가 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도 성행했다는 것은 낯선 이야기일 수 있다. 하지만 당대 신문 보도자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1920~30년의 토론회 개최 건수는 총 1481건으로, 이 시기 조선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매주 공개토론회가 열렸으며, 대형 토론회의 경우 보통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의 청중이 몰렸다.

그럼에도 1920년대 토론회는 그간 독자적인 연구대상으로 생각된 바 없다. 이는 첫째, 토론(회)라는 발화 혹은 집회의 형식이 연설(회), 강연(회) 등과 묶여 근대적 연설 문화라는 보다 큰 맥락에서 다루어져 왔기 때문이며, 둘째, 근대 연설 문화에 대한 논의에서 주로 주목했던 시기는 한일합방 이전의 개화기이기 때문이다. 대체로 1896년 조직된 협성회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는 근대 연설 문화에 대한 논의는 그간 여러 학문 분야에서 상이한 관심에 바탕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미 적다고만은 할 수 없는 논의가 축적되었다.

1) 송민호, 『일제강점기 미디어로서의 강연회의 형성과 불온한 지식의 탄생』, 『한국학연구』 32,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4, 125쪽.

먼저 역사학·사회학에서는 주로 19세기말 협성회와 독립협회의 토론·연설회를 문제삼으며, 이를 근대적 시민사회의 ‘공론장’이 형성되어 나가는 과정으로서 의미화하려는 경향을 보인다.²⁾ 한편 이 주제에 대한 고전적 연구라고 할 수 있는 전영우의 연구는 국어교육학의 접근으로서, 19세기말 협성회의 토론 교육 양상을 화법교육사의 맥락에서 살피는 동시에 주로 이상재의 연설 텍스트 분석을 통해 근대 초기 연설의 수사적 전략을 살피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근대문학 연구는 주로 연설, 토론 등 근대 초기의 구술적 미디어들이 초기 근대문학 텍스트와 맺고 있는 관계에 주로 주목해 왔다. 이 과정에서 특히 개화기 ‘토론체 서사’를 비롯한 한국근대문학 텍스트에 삽입된 연설·토론체 서술의 의미가 집중적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³⁾ 한편 음성 언어로서의 연설 언어가 문자 언어로 전환되며 형성되는 근대 한국어 에크리튀르의 성격에 대한 관심⁴⁾을

-
- 2) 대표적으로 신용하, 『독립협회 연구』, 일조각, 1976, 4, 7장. 그 외 이태훈은 인민이 근대의 정치적 자원으로 조직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독립협회의 정치적 연설이 수행한 역할을 조명하고 있으며(이태훈, 『한말 근대정치운동의 확산과 정치연설의 역할』, 『역사문제연구』 27, 역사문제연구소, 2012), 류충희는 『의회통용규칙』 등 당대 토론·연설 문화의 의례와 규범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번역 텍스트를 대상으로 근대적 공론장의 의사소통 규칙 확립 과정에 주목한다. (류충희, 『개화기 조선의 민회 활동과 『의회통용규칙』』, 『동방학지』 16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4)
- 3) 권영민, 『서사양식과 담론의 근대성』,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배정상, 『근대계몽기 토론체 서사의 특질과 그 위상』, 『현대소설연구』 28,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 이정옥, 『연설의 서사화 전략과 계몽과 설득의 효과』, 『대중서사연구』 17, 대중서사학회, 2007; 홍순애, 『근대소설의 장르분화와 연설의 미디어적 연계성 연구』, 『어문연구』 37(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9; 홍순애, 『근대소설의 형성과 연설의 미디어적 연계성 연구』, 『현대소설연구』 42, 한국현대소설학회, 2009; 문한별, 『연설의 근대적 서사화 가능성』, 『현대문학이론연구』 48, 현대문학이론학회, 2012; 송민호, 『연설하는 목소리의 서사화』, 『한국학논집』 69,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7.
- 4) 권용선, 『1910년대 근대적 글쓰기의 형성과정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송민호, 『자유의 종소리와 계몽의 들림』, 『민족문학사연구』 70, 민족문학사연구소, 2019. 그 외 홍순애(2009b), 앞의 글의 경우 ‘연설체 서간문’을 통해 ‘구술

한국근대문학 연구가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한 지점이다.

한편 이러한 분과 학문의 관심을 넘어 근대 연설 문화 자체를 독자적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론화하거나 보다 실증적·심층적으로 살피려는 논의들도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신지영의 연구는 근대 초기부터 일제 말기까지의 구술적 미디어 및 담론들을 계보화하는 동시에, 향상 현장에서 신체적으로 발화 및 수용되는 이러한 담론들이 근대적 담론 혹은 근대성 자체를 신체적으로 규율화하는 양상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돌과 갈등 등을 ‘신체적 담론의 사건성’이라는 개념으로 이론화 한다.⁵⁾ 신지영의 논의는 근대 연설 문화를 특정 담화 장르 혹은 공론장의 규범적 의사소통 형식이라는 차원을 넘어 구체적·역사적인 수행성의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관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편 근대 연설 문화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실증적인 접근은 주로 송민호와 이정옥의 연속적인 연구⁶⁾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연설 양식의 분화 및 그 배경에 대한 논의⁷⁾가 이루어진 것, 개화기 연설 문화에 대한 논의를 넘어 1920년대까지 관심을 확장하며, 1920년대

텍스트가 ‘기술 텍스트’로 이행하며 재맥락화되는 과정에 주목(618-621쪽)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지점이 있다.

- 5) 신지영, 『부/재의 시대』, 소명출판, 2012.
- 6) 송민호, 「개화계몽시대 ‘연설’과 ‘강연’의 분화와 비정치적 공론장의 배경」, 『한국문화』 55,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1; 송민호(2014), 앞의 글; 이정옥, 「애국계몽기 연설과 토론의 수용 과정」, 『현대문학이론연구』 43, 현대문학이론학회, 2010; 이정옥, 「개화기 연설의 ‘근대적 말하기’ 형성과정 연구」, 『시학과언어학』 21, 시학과언어학회, 2011; 이정옥, 「근대 초기 회의 규범의 수용 과정(1)」, 『한국문학논총』 59, 한국문학회, 2011; 이정옥, 「근대 초기 연설교육서에 나타난 근대적 말하기 규범」, 『국어국문학』 161, 국어국문학회, 2012; 이정옥, 「1900년대 후반기 대중연설의 확산과정과 연설문의 양상」, 『서강인문논총』 36,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이정옥, 「근대 초기 회의 규범의 수용 과정(1)」, 『인문학연구』 47,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4; 이정옥, 「협성회의 토론 교육과 토론문화의 형성과정」, 『국어국문학』 172, 국어국문학회, 2015; 이정옥, 「1900년대 연설의 분화와 대중화 과정」, 『서강인문논총』 47,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 7) 송민호(2011), 앞의 글; 이정옥(2016), 앞의 글.

의 강연 문화를 식민지 시기 대중미디어라는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⁸⁾된 점, 그 외 근대 연설 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 및 인물들의 활동을 소개·정리하며 실증적 성과들을 쌓아가고 있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적잖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1920년대의 토론회 문화는 독자적인 연구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이는 우선 그간의 논의들이 대체로 한일합방 이전의 연설 문화에만 집중했기 때문인데, 여기에는 근대 연설 문화가 개화기에 이미 정립되었다는 인식과 함께, 한일합방 전후부터 근대 연설 문화가 그 중요성을 잃었다는 판단이 놓인다. 특히 1907년 보안법 제정 이후 정치적 연설의 가능성이 봉쇄되며, 정치 연설이 점차 학술 강연으로 이행⁹⁾되어 근대 연설 문화의 정치성이 약화되었던 점이 문제가 된다. 이를테면 “1910년대의 연설”은 “한일합방 이후 속화의 길을” 걸었다는 판단¹⁰⁾이 성립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1920년대, 정확히 1910년대 이후의 토론회 문화 역시 평가절하된다. 실제로 1890년대 협성회 토론회가 “우리나라 철로 놓는 것을 외국 사람에게 허급치 아니함이 가함”¹¹⁾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현안문제에 대해 찬반토론을 벌였던 시국토론”¹²⁾의 성격을 가졌다면, 1908년 이후의 토론회는 그 정치적 성격을 잃고, 주로 말하기 교육을 위한 것으로 변화되면서 토론 주제 또한 급격히 추상화된다. 가령 1920년대 토론회 개최 기록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토론 주제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남성이나? 여성이나?”(38회), “학업의 성취를 위해서는 노력이나? 재능이나?”(32회)¹³⁾ 같은 것이다. 이정옥은 1900년대 후반 이후

8) 송민호(2014), 앞의 글.

9) 송민호(2011), 앞의 글, 218쪽; 송민호(2014), 앞의 글, 129-135쪽.

10) 이정옥(2013), 앞의 글, 104쪽.

11) 1896년 협성회 토론회 주제(전영우, 앞의 책, 316쪽).

12) 이정옥(2011), 앞의 글, 241쪽.

13) 이 글은 1920년대 토론회의 주제를 계열화하기 위해, 토론회 주제문장에 포함된 유사한 성격을 가진 단어들을 유형화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주제어 통계처리 결

토론은 “주로 신문의 논설과 결합되면서 토론체 형식의 단형 서사물이거나 장편의 토론체소설로 전환”¹⁴⁾되었다고 보는데, 이는 1900년대 후반 이후 주로 교육 목적으로 변화하게 된 토론회를 그 이전의 토론 전통과 단절된 것으로 바라보며, 이전만큼의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관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글은 1920년대의 토론회가 개화기의 토론회와 사뭇 다른 맥락에서 존재하면서도, 이전 시기 토론회 문화에 대한 식민지적 전유를 거쳐, 다른 구술적 미디어와는 다른 식민지 대중미디어로서의 고유성과 특징들을 가지며, 특히 식민지 대중들의 의사와 감정, 앓 등을 형성하고 공유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우선 1920년대 토론회의 고유성에 대한 이 글의 문제 의식을 제시하고, 이어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한 자료를 소개한 뒤, 1920년대 토론회의 배경과 참여 주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려 한다.

2. 식민지 대중미디어로서의 1920년대 토론회의 고유성

1920년대 토론회는 1920년대라는 시기, 토론회라는 형식 모두에 있어 근대 연설 문화의 중요한 논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대체로 연설·강연이라는 범주와 묶여온 인상이 짙다. 그러나 1920년대의 토론회는 식민지 대중미디어로서 다른 시기 및 다른 구술적 미디어의 형식과 분명한 변별 지점을 가지고 있었다. 우선 ‘토론’이라는 형식이 ‘연설’, ‘강연’ 등 다른 발화 형식과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당대 조선인들에게 분명히 의식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언변양

과 및 주제어 유형화 방법은 엑셀로 정리하여 온라인으로 공개했다. 다음 단축 링크를 참조. <http://bit.ly/3UhRsWy>.

14) 이정옥(2011), 앞의 글, 241쪽.

성에는 토론이나 강연이나란 문제”¹⁵⁾는 그 자체로 당대 토론 주제 중 하나이기도 했지만, 실제로 1920년대 당대의 기록들은 토론과 강연·연설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변별하고 있다.

금일 우리 조선에서 한 달에도 몇 번씩이나 강연이 있지만은 그것이 강연인지 연설인지 심하면 토론인지 분간할 수 없는 것이다.¹⁶⁾

이 문제는 토론문제로서 강연 문제가 아니라 그 토론을 시험하는 것인데, 그 내용을 들어봐도 아주 박약할 뿐만 아니라 청중에게 하등의 감동을 주지 못하고, 또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아무도 말하지 않은 점은 유감스러운 점이다.¹⁷⁾

이러한 진술은 연설·강연·토론 등이 그 내용과 형식, 목적 등에 있어 분명히 구분된다는 인식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전자의 경우, “심하면”이라는 표현으로 토론이 연설·강연보다 그 일반적 수준이 낮다는 인식을 드러내는데, 이는 토론회의 연사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즉, 토론회는 지식인이나 명사 뿐만 아니라 그보다 지적·문화적 지위가 낮은 학생·대중들이 발언할 수 있는 자리라는 생각은 근대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던 생각이었다. 이를테면 근대 초기의 대표적 연설교육서인 『연설법방』의 서문에는 “社會가 闇暗하니 先覺者-當諷說之不已며 後進者-亦討論之不暇”¹⁸⁾라는 진술을 통해 연설과 달리 토론을 ‘후진자’의 몫으로 규정하고 있다. YMCA에 대한 최남선의 회고에서도 연설 혹은 강연과 토론은 무엇보다 그 연사의 성격에 의해 구별된다.

15) 『영주청년회 강연회』, 『조선일보』, 1923.12.16.

16) 『유박 양씨의 강연을 듣고』, 『조선일보』, 1921.1.22.

17) 『學生風紀問題討論會開催狀況の件』(京鍾警高秘 10179), 『思想ニ關スル情報綴』 第7冊, 1930.07.04., 55頁, 번역은 인용자.

18) 안국선, 『연설법방』, 탐인사, 1907, 서문 2쪽.

제1은 교양적 연설이었다. 곧 내외 명사를 초청하여 국민의 교양에 필요한 일반 학리와 내외 사정을 들려준 것이니 …(중략)… 제2는 토론회의 실행이다. …(중략)… 명사 혹은 시민 혹은 학생의 각 층을 동원하여 정제 충실한 변론을 연습케한 것은, 실로 웅변 그것 뿐 아니라, 지식 계발 내지 사상 고취에도 위대한 공헌이 되었으며¹⁹⁾

이처럼 토론회에 ‘명사’ 뿐만 아니라 ‘시민 혹은 학생의 각 층’이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은 1920년대 토론회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실제 1920년대 토론회는 당대 문화장에 업존했던 지적·문화적 위계에도 불구하고, 그 위계의 상대적 하위에 놓여 있던 무명 대중들의 참여가 두드러졌으며, 또한 이러한 이름 없는 학생·대중의 토론회 참여는 “연사는 세상에 이름난 연사보다도 숨어 있어서 아직 학생 생활을 계속하는 이로만 한다”²⁰⁾는 식으로 권장되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토론회 참여 주체 문제는 토론이 강연보다 저급한 담화로 인식되었던 이유였기도 했지만, 동시에 토론회가 강연회와는 다른 차원에서 대중적 미디어로 기능할 수 있는 결정적 이유가 되기도 했다. 말하자면 토론회는 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충분히 배우지 못한 대중들이 공적 발화를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토론회는 대중적 파토스, 즉 대중들의 집단적·감정적 반응이 끊임없이 표출되었던 공간이기도 하다. 위 인용문에서 토론의 평가 기준으로 ‘감동’이라는 말이 제시되듯이, 실제로 토론회에 대한 당대 보도는 “무한한 감상”, “다대한 감동”, “비상히 흥분된 공기”²¹⁾ 등 토론회 진행 중 형성된 청중들의 집단적 감정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경쟁 토론이라는 토론회의 기본적 형식과 함께, 통제되고 정제되지 않은 청중

19) 최남선, 『대한중앙기독교청년회 반세기』, 『육당 최남선 전집』 10권, 현암사, 1974.

20) 『여학생의 토론회』, 『조선일보』, 1923.2.12.

21) 『서선구락부토론회』, 『조선일보』, 1920.12.26; 『엠티청년회대토론』, 『조선일보』, 1921.3.31; 『장로교당토론회』, 『매일신보』, 1926.9.10.

들의 자유 발언이 가능했던 ‘속론(續論)’, 토론 승패를 결정하는 ‘판정’과 같이 1920년대 토론회가 가졌던 특징적 절차들은 토론회에서 형성되는 이러한 집단적 파토스를 증폭시키는 중요한 장치로 기능했다. 1920년대 토론회에서 청중들의 집단적 감정의 발현에 따른 예기치 않은 소요는 항상 돌출했으며, 바로 이러한 점에서 토론회는 늘상 불온하고 위험한 것으로 취급되었다.²²⁾ 다음의 기사는 토론회에서 나타나는 집단적 감정과 예기치 못한 소란이 심지어 강연회와 토론회의 변별 기준으로 생각되기도 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연제가 말썽 많은 문제임으로 강연회가 토론회인 감도 不無하였으며 청중으로부터 반박연설한 자까지 있어 장내는 일시 요란하게 되었으나²³⁾

물론 식민지적 상황에서 형성된 1920년대 토론회 문화의 원칙적 한계는 분명하다. 무엇보다 1907년 보안법 시행 이후 정치 토론이 봉쇄당하고 철저하게 교육 목적 아래에서만 토론회가 열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09년 조직된 ‘국민토론회’가 “정치상에는 조금도 관계가 없고 일반 국민이 단합하여 지식을 발달할 목적”²⁴⁾으로 설립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했던 사정은 1920년대 토론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치 토론 금지로 인한 토론 주제의 추상화는 그 자체로 식민지적 상황의 반영이기도 하다. 당장 조선의 법역을 벗어난 곳, 가령 상하이에서

22) 단적으로, 1925년 2월 1일 개최 예정이었던 동아일보 부산지국 주최 소년소녀토론회의 경우, 경찰 당국의 종용으로 각 공립학교 교장들이 토론회 참가 연사들을 퇴학시키겠다고 협박하는 사건이 일어나 개최가 무산되었다. (『부산소년토론회 경과』, 『동아일보』, 1925.2.9) 1924년 성천수양회의 경우, “토론회 같은 것은 위험”하다는 보수적 회원들에 의해 내부 갈등이 촉발되기도 한다. (충언생, 『이병숙 훈도에게 여하노라』, 『동아일보』, 1924.12.1)

23) 『이혼문제강연』, 『동아일보』, 1925.6.3.

24) 『국민토론회조직』, 『대한매일신보』, 1909.5.9.

는 “민족적 독립의 성공되는 것이 자체의 역량에 있느냐? 국제의 관계에 있느냐?”²⁵⁾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가능했다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1920년대 토론회는 다분히 식민지적 미디어이기도 하다.

보다 근본적으로, 토론이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중요성을 가진다고 볼 때, 민주주의를 통한 정치적 의사결정 가능성이 봉쇄된 곳, 즉 식민지에서 토론회가 과연 의미있는 것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1920년대 토론회의 의미와 기능은 원래의(혹은 이전의) 토론 문화에 대한 식민지적 전유를 거친 자리에서 존재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토론의 규범과 형식·내용과 주제·실제적인 실현 사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불일치와 균열을 통해 나타난다.

이러한 지점에서 1920년대 토론회 주제의 추상화를 문제삼을 수 있다. 언급했듯이 식민지의 정치적 부자유로 인해 1920년대 토론회 주제는 매우 관념적·추상적 형태로 설정되는데, 이는 ‘A를 위해서는 B이나? C이나?’라는 식으로, 추상적 개념들이 가진 가치의 이분법적 대립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말하자면, 1920년대의 토론회는 금전-지식, 노력-재능, 교육-산업, 남성-여성²⁶⁾ 등의 추상적 개념들을 대립(B-C)시키며, 다시 이를 ‘사회의 발전’, ‘사업의 성취’, ‘가정의 행복’²⁷⁾ 등 조선 사회 혹은 그 구성원들이 성취해야 할 가치(A)와 결부시킨다. 이러한 1920년대 토론회의 주제는 폭력적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목표와 가치체계의 혼란 및 재조정, 그리고 저개발 식민지의 물질적·사회적 자원 부족이라는 현상 및 분배 우선 순위의 결정 필요성이라는 문제와 깊은 관련을 맺는다. 이러한 점에서 1920년대 토론회의 추상적 주제

25) 『상해동맹토론 연사의 렬변과 청중의 흥분』, 『동아일보』, 1924.7.10.

26) 1920년대 토론회 주제에 대한 통계처리 결과, 금전-지식의 대립쌍은 104회, 노력-재능은 81회, 교육-산업은 58회, 남성-여성은 167회 나타난다.

27) 사회의 발전은 85회, 사업의 성취는 83회, 가정의 행복은 45회 나타난다.

는 식민지 대중의 가치 및 심성 체계에서 근대적 개념들의 가치 및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이해 및 적용해보는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여기서 더욱 중요한 점은 식민지적 상황에서 이렇게 토론의 주제가 추상화되며, 토론회의 주제와 형식, 그리고 토론회의 실제 발화를 통한 실현 사이의 불일치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1920년대 토론회가 개화기의 가부편 경쟁 토론 형식을 물려받아 여전히 ‘가편·부편’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추상적 개념들의 가치를 대어보는 1920년대 토론회의 주제는 토론회의 이러한 규범적 형식과 충돌한다. 뿐만 아니라 토론의 주제가 추상적 관념어로 구성됨에 따라, 그러한 관념에 대응하는 실제 발화 내용이 토론의 주제 혹은 토론의 목적과 어긋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사회를 유지함에는 도덕이나 법률이나라는 문제로 토론을 할 새 ... (중략)... 부편 연사 중 김상현 씨는 토론 중 작년에 일어난 독립운동을 도덕으로는 도저히 제지할 수 없으나 법률로는 제지할 수가 있다는 말에 대하여 경관은 불온한 언론이라 하고 동 김상현 씨를 이주일 구류에 처하였다 하더라.²⁸⁾

이 사례에서 토론 주제어인 ‘도덕’과 ‘법률’은 ‘독립운동’이라는 불온한 기호와 돌발적으로 결부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발화가 부편, 즉 도덕보다 법률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기로 한 연사의 발화라는 점에서 이 발화는 경쟁 토론의 기초적 규범을 무화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례에서 토론회의 규칙과 주제, 그리고 현장의 발화를 통한 그 실제 실현은 서로 불일치하며,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은 지식 혹은 웅변의 교육이라는 토론회의 명분상 목적이 달성되는 광경이 아니라, 토론회에 참여하는 대중들, 즉 연사와 청중들이 공유한 공동의 파토스와 함께, 이러한

28) 『김씨의 설화』, 『동아일보』, 1920.8.7.

파토스가 식민지 권력과 물리적으로 충돌함으로써 토론 자체가 강제적으로 중단되는 광경이다.

이러한 점에서 1920년대 토론회는 서구 근대 민주주의에 기원을 둔²⁹⁾ 구술 미디어로서의 토론회가 1920년대 조선의 식민지적 상황에서 식민지적·대중적으로 전유된 식민지 대중미디어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1920년대 토론회는 그 규범적 형식을 대부분 개화기 토론회로부터 물려받았지만, 실은 토론회의 규범적 형식·내용과 주제·실제로 실현된 발화 사이의 불일치에 따른 균열들이 항상 발생했으며, 그러한 균열들 속에서 ‘교육 목적’으로 제한된 토론회의 공식적 목적은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1920년대 토론회에서 자주 엿보이는 이러한 균열의 지점은 식민지 대중들의 집단적인 파토스와 함께, 그들이 가진 가치와 심성 체계의 단면들, 그리고 그에 기초한 공동의 의사를 역설적으로 가시화한다. 말하자면 1920년대의 토론회는 공적인 담론장에서 자신의 의사와 감정, 목소리를 표출할 수 없었던 식민지의 하위주체-대중들이 그들의 감정과 의사를 드러낼 기회를 제공하는 매우 드문 미디어였으며, 이렇게 나타난 대중들의 목소리는 때때로 식민권력과 불온하게 충돌하기도 하였다. 바로 이러한 점들이 다른 시기의 다른 구술적 미디어들과는 다른 1920년대 토론회의 고유한 의미와 기능을 형성한다.

3. 연구 자료 및 연구의 범위

이 글은 이처럼 1920년대 토론회를 식민지 대중들이 근대적 지식 개념을 습득·교환하는 한편, 집단적 파토스를 분출하고 공동의 의사를 표

29) 개화기 토론·연설 규범의 정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윤치호가 번역한 『의회통용규칙』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수 있다. (이정옥(2014), 앞의 글; 류충희, 앞의 글)

현할 수 있었던 주요한 식민지 대중미디어로서 바라보며, 1920년대 토론회와 관련한 식민지 조선의 문화사적 풍경을 실증적으로 재구성하려 한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연구 자료이다. 기술적 미디어를 동반하지 않는 대부분의 구술적 미디어가 그렇지만, 1920년대의 토론회 또한 현장의 발화가 이루어지는 즉시 휘발되어버린다는 점에서 그 구체적 내용에 접근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보』, 『시대일보』(중외일보) 등 당대 주요 일간지는 주로 지방면·집회란 등을 통해 토론회 개최 소식을 보도하는 단신 기사를 빈번하게 수록했다. 편차가 있지만 이러한 기사에는 일반적으로 주최단체, 개최 시일 및 장소, 주제, 참가자 명단과 청중 규모, 진행 순서와 토론 결과, 청중 반응 등을 기재하고 있으며, 또한 적잖은 기사에는 토론회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 사고가 실리기도 한다. 이러한 신문기사들은 한 편 한 편의 기사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를 집적할 경우 1920년대 토론회의 전체적 규모, 시공간적 분포 등 양적 지표들과 함께, 1920년대 토론회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 특성들을 짐작할 수 있게끔 해준다. 때문에 이 글에서는 주로 1920년대 4개 전국 일간지를 중심으로 하여 확인할 수 있는 1481건의 토론회 개최 기록을 목록화하고, 각 토론회에 대한 여러 세부 정보를 추가한 토론회 개최 기록 데이터³⁰⁾를 구축하여, 기본적으로 이를 바

30) 다음 단축 링크 참조. <http://bit.ly/3UhRsWy>. 이 데이터는 개최 기록에 대한 출처를 기재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이후 개최일 및 주최단체가 기재된 토론회를 언급할 때, 경우에 따라 자료 출처 제시를 생략할 것이다. 한편 이 데이터가 가진 한계를 밝혀둔다. 첫 번째로 대체로 신문보도자료에 바탕한 본 데이터는 개최가 보도된 토론회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1920년대에 개최된 모든 토론회를 포괄하지 못한다. 본 데이터가 확보한 개최 기록은 최소치라고 보아야 하며, 1920년대 조선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공개 토론회가 개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로, 본 데이터는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와 같은 공개 데이터베이스의 키워드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구축된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지원하는 검색 범위에 따라 검색량이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다. 본 데이터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통해 확인한 기록

탕으로 1920년대 토론회 문화의 실상에 접근하려 한다. 그 과정에서 몇 가지 간단한 통계 처리 결과도 활용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데이터 이외에, 보도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특징적·예외적 사례들에 주목하여, 이를 1920년대 토론회의 특징을 예시하는 사례로 활용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 이루어진 발화의 발화 방식과 실제 내용에 대해서는 접근할 수 있는 연구 자료가 적은 편이지만, 아예 없지는 않다. 신문 보도기사에 연사들의 발언 요지가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는 경우³¹⁾가 드물게 있으며, 또한 현병주³²⁾가 엮은 『남녀연합토론집』³³⁾, 『연합현상남녀토론집』³⁴⁾(<그림 1>)



그림 1. 『연합현상남녀토론집』 표지

이 다른 신문 보다 훨씬 많은데, 이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경우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를 통해 본문 포함 단어를 검색 가능했기 때문이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원하는 검색 범위가 확장될 경우 『매일신보』, 『시대일보』에서 더욱 많은 개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 본 데이터는 신문보도기사를 중심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신문 휴·정간이 정보량에 영향을 준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 31) 대표적으로 「남녀가부편의 대토론」, 『매일신보』, 1921.7.4; 「남녀연합 현상토론」, 『조선일보』, 1925.6.2 등. 그 외에 「조리잇고 괴운찬 웅변 만장인사도취」(『조선일보』, 1927.4.17)에는 현상토론대회 1등 수상자의 토론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 32) 현병주(1880~1938)는 근대 저술가·작가로서, 이기영과 친밀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구활자본 대중역사소설을 썼으며, 여러 실용서 또한 저술한 바 있다. 현병주에 대한 실증적 접근으로는 장연연, 「대중계몽주의자 현병주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33) 현병주 편, 『남녀연합토론집』(4판), 광문사, 1928(초판: 1921.8.20). 이상경과 장연연이 책의 구성과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 및 정리(이상경, 「『남녀연합토론집-부(附) 여사 강연』과 김일엽의 여성론」, 『여성문학연구』 10, 한국여성문학회, 2003; 장연연, 앞의 글, 27-32쪽)한 바 있다. 그 외 국어학에서의 연구가 있다. (이익로, 「『남녀연합토론집』의 문체 특성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 34) 현병주 편, 『연합현상남녀토론집』, 광문사·우문관서회, 1927. 이 책은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언급된 바 없는, 처음 소개하는 자료이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에 주목할 수 있다. 이 두 책은 각각 1920년의 여러 토론회 연설(『남녀연합토론회집』) 및 1927년 4월 15일 동대문 애플스청년회 주최 전서울면려·애플남녀현상토론회의 연설 내용(『연합현상남녀토론회집』)을 옮긴 책으로, 당대 토론회에서 이루어진 실제 발화의 내용과 형식을 짐작할 수 있게끔 하는 보기 드문 자료이다.³⁵⁾ 또한 특히 『남녀연합토론회집』은 이기영, 정지용, 이선근, 송봉우 등 뒤에 문인·학자 등으로 성장하는 사람들 및 나혜석·김일엽·정마리아 등 이미 유명세를 얻고 있었던 신여성들의 토론회 참여 및 그 발화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기도 하다.

한편 현병주는 강연, 토론 등 당대의 구술적 미디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보기 드문 저술가로서 이외에도 대중강연회의 강연 및 연설 내용을 기록한 총 5권 분량의 『시사강연록』, 당대 명사들과의 대담을 기록한 『명사시담』(1922), 연설교육서인 『연설법대방』(1925) 등을 저술했다. 이는 박준표의 『십분간연설집』(1925), 조선웅변사 편, 『조선웅변집』(1930)과 같은 1920년대에 간행된 다른 연설교육서·연설집 류와 함께 당대 연설의 일반적 스타일과 함께, 토론이라는 담화 장르의 변별점을 확인하기 위해 비교·참조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소장되어 있다. 자료의 열람 및 촬영을 허가해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감사의 말씀 올린다.

35) 현병주가 속기술과 같이 소리를 가급적 그대로 문자로 옮겨내려 하는 의식적 방법이나 기술을 사용한 것이 아님에는 유념해야 한다. 현병주는 그의 다른 책에서 연설을 옮기는 방법에 대해, “余는 時行 速記術에 昧한 者이라 문득 演士의 言辯을 徹底的 落誤 업시 記寫한 것이 아니오 다만 그 言論의 要領을 資筆의 材料로 備함에 不遇”하며, 따라서 “勿論 舌과 筆이 一致치 못함은 免不得”이라고 서술한다.(현병주 편, 『시사강연록』 제5집, 광문사, 1922, 2-3쪽) 즉, 현병주의 기록 또한 강연·토론회의 발화를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점에서 현병주의 기록을 당대 토론·강연회에서 발화된 소리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텍스트가 아니라, 당대 물질적 소리로서 발화된 언어를 문자 텍스트로 전환하려는 다양한 시도의 한 사례를 보여주는 텍스트라는 관점에서 분석해 볼 필요성도 존재한다.

다음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유형은 토론회에 대한 검열·취체·감시와 관련하여 경찰 당국에서 생산한 정보 문서들이다. 이러한 정보 문서들은 일본어로 작성되었지만, 토론회 진행 과정과 발언 내용을 비교적 소상히 기록한 경우가 많다. 또한 이러한 문서들은 식민지 치안 당국자가 당대 토론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토론회에 대한 검열취체의 방식 및 치안 당국에서 통제·감시하려 했던 토론회의 ‘불온성’ 등을 파악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 유형의 자료로 현재까지 확보한 것은 1931년에 생산된 것을 합쳐 6건(<표 1>)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표 1. 토론회 관련 총독부 경찰 정보 문서(1920~1931년)

문서철	문서번호	문서생산시기
不逞團關係雜件 朝鮮人ノ部 在内地 十一	高警第31058號	1920.10
學生盟休に 關スル 情報綴	京鍾警高秘 第2301號	1928.7
學生盟休に 關スル 情報綴	京鍾警高秘 第2427號	1928.7
思想に 關スル 情報綴 第7冊	京鍾警高秘 第10179號	1930.7
思想に 關スル 情報綴 1	京鍾警高秘 第11628號	1931
思想に 關スル 情報 1	京鍾警高秘 第14144號	1931

마지막으로 언급할 수 있는 유형은 토론회에 대한 회고 및 재현으로, 이 유형의 자료는 근대 문인들의 토론회 체험이라는 또 다른 주제를 제기한다. 이와 관련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1920년대 토론회가 식민지 조선의 전국 각지에서 활발히 개최되었던 행사라는 점에서 근대 문인들의 토론회 참여 기록을 상당수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1920년대의 것을 포함한 근대 조선의 토론회 문화는 한국근대문학과 그 문인들의 중요한 문화적 체험 중 하나이다. 아래 <표 2>는 1920년대 근대문인들의 토론회 참가 기록 목록이다.

표 2. 1920년대 근대문인의 토론회 참가 기록

일시	주최기관	참가자	자격
1920.2.14.	동대문예배당 엠플스청년회	정지용	연사
1920.5.22.	정동예배당 엠플스청년회	정지용	연사
1920.8.20.	천안구락부	이기영	속론 연사
1920.8.29.	전주 천도교청년회	김해강(김대준)	연사
1920.9.16.	엠플스청년회	김일엽(김원주)	연사
1920.9.24.	신여자사	김일엽(김원주)	연사
1920.9.24.	신여자사	나혜석	사회
1920.11.4.	학생대회	정지용	연사
1921.7.23.	마산구락부	이은상	연사
1922.7.25.	궁정동 엠플스청년회	이적효(이응중)	연사
1922.7.30.	이천 엠플스청년회	이하운	연사
1923.1.27.	종교예배당 엠플스청년회	윤기정	연사
1923.2.19.	성천군 소년단	김남천(김효식)	연사
1923.8.18.	회령청년회	최서해(최학송)	연사
1923.8.28.	무주군유학생회	김환태	연사
1923.11.9.	이천소년회	이하운	지도원
1924.1.20.	북경조선유학생회	양명	연사
1924.7.5.	조선여자교육협회	최남선	심판
1924.11.1.	개성 고려청년회	고한승	사회
1925.3.1.	누하동 반도소년부	박철혼	심판
1925.3.14.	이천 기독교청년회	이하운	연사
1926.11.15.	재령 무산청년회	송순일	연사
1927.4.15.	동대문 엠플스청년회	최남선	심판

이미 여성 문인으로 유명하던 나혜석과 김일엽을 제외한다면, 위 목록에 연사로 등재된 다른 문인들의 경우, 아직 작가로서 명성을 얻기 이전이었다. 가령 정지용은 이 시기 휘문고보 학생으로서, 연설에 능한 학생으로 주목받았던 것으로 보인다.³⁶⁾ 최서해의 토론회 출석은 회령역 부

근에서 노동하던 시절의 일³⁷⁾이고, 성천군 소년단 토론회에 출석한 김남천은 12세의 소년에 불과했다. 이러한 사정은 당대 학생·문인들이 참여 가능한 대중미디어로서의 토론회 참여 주체의 다양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한편, 근대적 토론회가 근대 문인들이 보편적으로 체험했던 근대적 풍경의 일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꼭 1920년대에 한정하지 않고-한국 근대문학 텍스트에는 근대적 토론회에 대한 언급이나 재현이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광수의 『무정』(1917), 전영택의 『생명의 봄』(1920)과 같은 작품이 “갑갑하면 …(중략)… 장난으로 남녀문제의 토론도 하고”³⁸⁾ 하는 식으로 단편적 언급에 그치는 경우라면, 전무길의 『적멸』(1937), 한설야의 『탑』(1941), 최정희의 『우물치는 풍경』(1948)과 같은 경우에는 각각 다른 시기를 배경으로 한 근대적 토론회의 풍경이 상세하게 장면화되어 등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로부터 근대의 토론회 문화가 회고·재현되는 양상을 살피며, 근대작가들의 토론회 체험 및 근대의 토론회 문화가 일상화되는 과정에 대한 인식을 살필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이 글은 위 자료들을 염두에 두며, 1920년대 토론회의 문화사를 실증적으로 재구성하며, 식민지 대중미디어로서의 1920년대 토론회의 의미와 기능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를 위해서는 개최 건수를 비롯한 여러 양적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1920년대 토론회 개최 현황과 함께, 그 사회적 배경, 토론회의 주최 기관 및 참여자 등의 주체, 토론회의 규범적 절차와 형식, 토론회 주제의 유형·경향·전파 방식, 토론회의 실제 발화 내용과 형식 및 발화가 기록되는 방식, 토론회에 대한

36) 1920년 5월 22일 정동예배당 엠프스청년회 주최 토론회는 경성 시내 각 예배당 엠프스청년회에서 “변설의 특장을 가진 사람”(『현상토론회』, 『동아일보』, 1920. 5.21) 을 연사로 선발한 연합토론회로서, 정지용은 동대문예배당 대표로 참석한다.

37) 1923년 최서해의 토론회 참석 사실 및 그 의미에 대해서는 유승환, 『1923년의 최서해』, 『한국현대문학연구』 52, 한국현대문학회, 2017. 참조.

38) 전영택, 『생명의 봄』 (2), 『창조』 6, 1920.5, 30쪽.

검열취체의 방식, 토론회에 대한 기억·회고 및 문학적 재현 등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겠으나, 이 글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토론회의 개최 현황과 토론회 문화의 배경을 제시하며, 특히 토론회 참여 주체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범위를 좁히려 한다. 이는 무엇보다 학술지 논문의 형식과 분량을 고려했기 때문이며, 또한 1920년대 토론회라는 미디어의 존재 자체를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1920년대 토론회 문화를 재구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4. 3·1 운동 이후 공론장의 변화와 청년회 운동으로서의 토론회

1920년대 토론회는 얼마나 자주, 그리고 많이 개최되었을까? 언급했듯이 신문보도자료를 중심으로, 1920~1930년 확인 가능한 토론회 개최 건수는 총 1481건이지만, 이는 확인 가능한 최소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는 훨씬 더 많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³⁹⁾ 또한 1920년대 토론회의 성행은 문화적 중심지인 경성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난 현상이기도 했다. <그림 2>는 토론회의 지역별 분포이다. 경성을 포함한 경기 지역의 수치가 가장 높지만, 제주, 충북, 함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도 대체로 80~14

39) 후술하겠지만 토론회는 이 시기 우후죽순 결성된 청년·사회 단체의 주요한 사업 프로그램이었으며, 많은 단체에서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대한 신문보도에는 해당 토론회가 몇 회째인지를 밝히는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1923년 6월 23일 진주 천주교청년회 토론회는 제59회 정기토론회라고 보도된다. 이때 같은 단체에서 동년 2월 24일에 개최한 토론회는 27회 토론회이다. 따라서 이 단체는 4개월 동안 무려 33회의 토론회를 개최한 것인데, 이 중 보도가 된 것은 위의 2건 뿐이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토론회가 열렸을 것이라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

0건 정도의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다. 말하자면 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토론회는 전국 각지 어디에선가 거의 매주 개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지역별 토론회 개최 건수

동시에 이러한 토론회의 성행은 다분히 1920년대의 현상이기도 하다. <그림 3>은 1920~1930년 사이 연도별 토론회 개최 건수 추이를 보여주는데, 이를 통해 판단한다면, 토론회 문화는 1920년대 전반기에 급격히 발흥했다가



그림 3. 연도별 토론회 개최 건수

1923년에 그 전성기를 맞이한 뒤, 1925년을 기점으로 1920년대 후반으로 가며 그 열기가 급속히 수그러졌다고 할 수 있다.⁴⁰⁾

1920년대 전반기 토론회 문화의 이러한 발흥은 기본적으로 3·1 운동 직후의 새로운 사회적 분위기를 직접적 배경으로 삼는다. ‘근대시민혁명’으로서의 3·1 운동의 경험은 식민지 대중들의 정신과 언어를 극적으로 변화시켰으며, 3·1 운동 직후 시행된 문화통치는 이러한 대중의 목소리를 수용하고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새로운 공론장을 형성시켰다.⁴¹⁾ 1920년대 토론회의 발흥은 이러한 변화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자, 이를 예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토론회·강연회를 3·1 운동 이후 새롭게 열린 ‘집회’의 공간으로 이해하며, 그 속에서 ‘조선민족’의 억눌렸던 집단

40) 신문보도를 중심으로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림 3>에 나타난 추이가 실제 개최 건수 증감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1920년대 중반 이후 토론회는 중요한 보도가치를 가진 사회적 사건으로서의 성격을 잃었다는 판단은 가능하다.

41) 박숙자의 논의(『3·1 운동 이후의 말, 『개벽』과 독자』, 『국어국문학』 202, 국어국문학회, 2023, 87~90쪽)를 참고한 진술이다. 박숙자는 위 글에서 3·1 운동 이후, 삼일운동에 ‘정동’된 대중들의 신체와 마음에 근거한 대중의 새로운 목소리가 나타났다고 보며, 『개벽』, 『동아일보』, 『조선일보』와 같은 매체들이 이러한 목소리를 전유하는 새로운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고 있다.

적 목소리가 발현될 수 있는 새로운 공론장의 가능성을 발견하려 했던 것은 이미, 토론회에 대한 당대의 관점 중 하나이기도 하였다. 이를테면 박팔양은 “강연회 토론회가 연일 연야 도처에서 개최되며 전에 없던 여러 잡지가 여기저기서 발간케 된 것이 정히 기미 이후의 일”⁴²⁾이라고 회고하거나, 다음 기사 또한 이러한 당대적 관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일한병합 이래에우리 조선민족으로 말하면 舌이 有하여도 裁하지 못하였고 筆이 有하여도 執하지 못하였다. …(중략)… 그런 고로 會를 集하려 하여도 集하지 못하였고 …(중략)… 정치미가 있는 설교라든지 시국기가 있는 講道일 것 같으면 반드시 그 이튿날이나 심하면 그 자리 그 講道나 설교가 끝난 후에는 곧 경관의 호위裡에 경찰서나 헌병대로 가서 勅문을 受하게 되었다. …(중략)… 그러하던 것이 于今하야는 上天이 下祐함인지 우리 조선민족이 자각함인지 혹은 宇内の 대세가 위정자의 뇌근을 자극함인지 언론의 자유가 완전치는 못하나마 적이 해방된 듯 하여 뜻있는 자 2인만 會하여도 …(중략)… 혹은 잡지로 혹은 신문으로 혹은 집회로 확전하던 新색채를 芻하게 되었다. … 무슨 목적을 가진 □□(인용자: 식별불가)회요 무슨 문제를 토론하는 토론회 등으로 심히 귀여워할만하고 심히 중하게 여길만한 집회가 處處에 유한 이 목하 境성에 재하여도 매일 4, 5개의 우리 동포만으로 조직된 집회가 유함을 견할진대⁴³⁾

또한 1920년대 토론회의 발흥은 3·1 운동 이후 급속히 발전하던 청년회 운동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토론회는 강연회, 야학회, 도서중람소 설치 등과 함께 1920년대 초반 청년회 운동의 주요한 사업 프로그램으로, 당시 각 지역마다 우후죽순 결성되던 지역 청년회에서는 대부분 토론회 개최 계획을 사업 계획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또한 토론회를 통한 ‘民知의 개발’과 ‘사회교육’은 『동아일보』와 같은 매체들이 각지 청년회

42) 박팔양, 『조선신시운동개관』(3), 『조선일보』, 1929.1.7.

43) 이면□(인용자: 식별불가), 『강연회는 何也』(1), 『조선일보』, 1920.6.9.

에 부단히 요청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민지를 개발하는 방법이 허다하다. 학교교육이 근본이나 사회교육이 또한 필요하니 이제 청년회 각 지방에 산재하여 친목을 중심으로 작아야 신문잡지의 공동구독, 토론회, 강연회 등의 개최, 활동사진, 연극 등의 흥행 등 제반 활동으로 각 방면 지식을 종합하면 그 엇지 民運 발전에 일대 요소가 아니리오. 噫라 국가의 지도를 대하지 아니하고 청년이 스스로 활동하여 자가의 운명을 개척함이 더욱 아름답도다.⁴⁴⁾

실제로 1920년대 토론회 주최 기관을 통계적으로 살펴볼 경우, 청년회는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1920년대의 청년회를 다시 종교 기반 청년회와 지역 기반 청년회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1920년대 초반의 시점에서 감리교 엠위스청년회와 장로교 면려청년회 등 기독교 계열 청년회는 가장 중요한 주최기관이었다. 이는 개화기 협성회, 독립협회 등에서 시행된 토론 및 토론 교육의 전통이 1900년대 후반 이후 월남 이상재가 이끌었던 YMCA에 의하여 계승된 사정⁴⁵⁾과 관계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1920년대 토론회 주최 기관 유형을 나누어 본다면 ①각 지역 청년회를 중심으로 그 외 소년회, 친목회 등을 포함한 지역 기반 단체 ②엠위스청년회 등 종교 기반 청년회를 중심으로 주일 학교 등을 포함한 종교 기반의 단체 ③지역 학우회, 학교별 동창회, 유학생 친목회, 야학 및 강습소를 포함한 각 학교의 토론 모임 등 학생 및 교육 관련 단체를 가장 주요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외 ④직능별 조합 등 노동 단체 ⑤사상 및 운동 결사 ⑥신문사·잡지사 등 언론사 등 소수 사

44) 『각지 청년회에 속하노라』, 『동아일보』, 1920.5.26.

45) 최남선, 앞의 글; 전택부, 『이상재 평전』(전자책), 범우사, 2013, 7장. 실제로 1920년대 이상재는 “변론계의 원로”(『여자현상토론회』, 『동아일보』, 1924.7.14)로 불리기도 했으며, 같이 YMCA에서 활동하던 김창제, 신흥우, 김일선 등과 함께 1920년대 경성에서 열린 대규모 토론회의 심판을 자주 맡기도 했다.

례가 존재한다. 여기에 성격이 상이한 기관들이 연합 주최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1920~1930년 토론회의 주최 기관 유형별 개최 건수는 <표 3>과 같다.

이를 통해 1920년대 토론회는 기독교 청년회 및 지역 청년회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하지만 위 그래프를 1920~1922년, 1923~1925년, 1926~1930년의 세 시기로 나누어 상위 3유형의 비율 변동을 살펴본다면(<표 4>) 조금 더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

표 3. 주최 기관 유형별 개최 건수 및 비율

유형	건수	비율
지역 단체	682	46.5%
기독교 단체	521	35.5%
학생 및 교육 단체	149	10.2%
언론사	21	1.4%
노동 단체	19	1.3%
사상 및 운동 단체	19	1.3%
연합	18	1.2%
천도교 단체	17	1.2%
불교	16	1.1%
시천교 단체	3	0.2%
기타	1	0.1%
총계	1466	

표 4. 기간별 주최 기관 유형별 개최 건수 및 해당 기간 내 비율 (상위 3유형)

기간	1920~22년	1923~25년	1926~30년
유형	개최건수(비율)	개최건수(비율)	개최건수
지역 단체	195(39.6%)	257(46.2%)	230(55.0%)
기독교 단체	237(48.2%)	176(31.7%)	108(25.8%)
학생 및 교육 단체	25(5.1%)	87(15.6%)	37(8.9%)

위 표를 본다면, 192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기독교 단체의 비중이 줄고, 지역 단체의 비중이 늘고 있다. 이 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920년대 토론회 문화는 기독교청년회 운동이 계승하고 있던 토론회라는 교육 혹은 집회의 형식을 각 지역별 청년회 등, 3·1 운동 이후 급속히 발흥한 지역 운동 단체들이 수용·전유함으로써 그 전성기를 맞이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1920년대 토론회 문화가 3·1 운동 이후의 새로운 사회

적 분위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과 함께, 기독교청년회 운동의 전통에서 계승되던 토론회 문화가 지역 청년회에 수용되면서 생기는 변화들을 고민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토론회 개최 기관 중 언론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부기할 부분이 있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1920년대에 언론사가 직접 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는 1920년대 토론회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었다. 동아·조선일보사와 같은 대형 언론사 및 그 지방 분국(分局)이 각 지역의 대형 토론회 행사를 후원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 둘째, 지방면 등을 통해 각 지역의 토론회 개최 소식과 함께, 토론회의 주제 및 참여자, 진행 과정에서 생긴 사건들을 적극적으로 보도함으로써, 토론회 개최를 포함하는 청년회 운동의 수행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네트워크화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한 후술할 대도시 토론회의 상업화 현상과 관련하여, 대형 언론사들이 경성 등 대도시에서 열리는 대형 토론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이를 이용해 구독자를 확보하려는 미디어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친 경우도 보인다. 이를테면 1927년 4월 15일 동대문 엽위스청년회 주최 대형 토론회⁴⁶⁾의 경우, 조선일보사는 후원을 맡는 한편, 당일 지면을 통해 토론회 입장권 할인권(<그림 4>)을 배포함으로써 토론회를 신문 판촉 전략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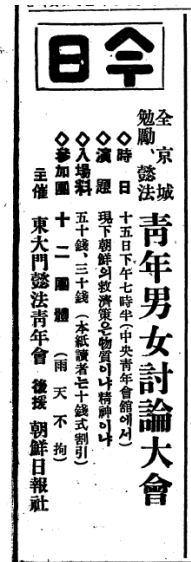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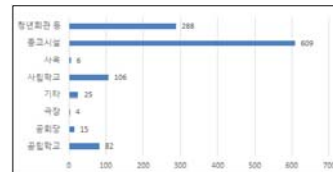


그림 4. 1927년 4월 동대문 엽위스청년회 토론회 입장할인권 (『조선일보』, 1927.4.15)

46) 현병주의 『연합현상남녀토론회』에 기록된 토론회로서, 경성 시내 엽위스 및 먼러청년회에서 무려 16~18명의 대표 연사를 선발하여 진행한 초대형 토론회이기도 했다. 참가 규모에 대한 기록은 출처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다.

다음으로 살필 것은 토론회의 개최 공간 문제이다. 토론회가 구술적 담론이 교환되는 일종의 집회라고 할 때,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1920년대 토론회의 중요한 물적 기반이 된다. 1920년대 토론회가 열렸던 장소는 크게 보아 ① 교회 등의 종교 시설 ② 청년회관 등 지역 단체들의 집회 시설 ③ 야학과 사설강습소를 포함한 학교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는 토론회의 개최 기관이 크게 기독교 계열 청년회, 지역 청년회, 학생 및 교육 단체로 대별되는 것과 조응한다. 그 외에 공회당, 극장, 심지어 사옥(私屋)이 활용되는 경우도 보인다.<그림 5>



주목되는 점은, 주최 기관 비율의 경우 지역 단체가 기독교 단체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개최 공간의 경우 종교 시설에 비해 청년회관이나 공회당의 비중이

그림 5. 1920년대 토론회의 개최 공간(단위: 개최 건수)

현격히 낮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지역 단체는 충분한 물적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채, 토론회를 비롯한 청년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을 교회나 학교에 의존한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1920년대 토론회 개최 공간은 해당 지역에 지역 단체들이 자유롭게

표 5. 회령 지역 토론회의 개최 공간

날짜	개최 단체	개최지
1921.12.31	회령부녀야학회	회령예배당
1923.1.5	회령청년회	회령예배당
1923.2.10	회령청년회	회령보통학교
1923.8.18	회령청년회	회령청년회관
1924.8.19	회령학생친목회	회령청년회관
1924.9.20	문흥구락부	회령청년회관
1925.1.23	문흥구락부	회령청년회관
1925.2.3	두립친목회	미상
1925.5.17	회령청년회	미상
1925.7.11	회우학생친목회	회령청년회관
1927.1.23	회령활용청년단	미상
1929.8.10	회령청년연맹	회령청년회관

이용할 수 있는 청년회관의 존재 여부에 따라 갈리는 경향을 보인다. 하나의 사례로 회령 지역에서 개최 기록이 확인되는 12건의 토론회 기록을 살펴볼 때, 회령 청년회관이 완공되는 1923년 7월(7)을 전후로 토론회

개최 장소가 모두 회령청년회관으로 바뀐 것을 <표 5>에서 볼 수 있다.

이처럼 종교 시설이 토론회의 주요 개최 공간으로 기능하며, 때때로 시설을 제공하는 교회 측과 청년회 측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존재했다.

기독교 청년회가 십여 년 전에 창립되었는데 …(중략)… 매 토요일마다 당지 야소교회당을 임시 빌어서 의사를 소통하며 토론도 하여 이 강연회로 말미암아 사상상으로든지 물질상으로든지 큰 유익이 되어 왔다. 그런데 어느 토요일에 어떤 연사가 등단하여 금일 조선 기독교도의 미신적 동작과 허위망동이 있음을 통탄하다가 일보를 진하여 교회제도의 모순을 절규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교회당에서는 아무 상관없이 그 이튿날 온 교회에게 기독교 청년회 강연회는 영원히 폐지한다고 청년회에서 도 모르게 광고하였다. …(중략)… 사상이 서로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 강연회는 개인의 회가 아니고 衆人의 회가 아닌가, 일 개인에게 잘못이 있다 하면 개인에게 경책하던지 무엇을 하던지 할 것이지 회를 폐지한 다함은 무슨 까닭인가 이것이 횡포가 아니고 무엇인가⁴⁸⁾

1920년대 청년회들이 이러한 어려운 사정에서 공공 영역, 즉 공공시설에 기댈 여지가 많지 않았다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각 지역의 공공시설들이 불충분한 상황과 함께, 위에서 언급했듯이 행정·치안 기관에서 토론회를 위협한 것으로 백안시켰다는 점도 고려될 수 있다.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 사회의 공공시설로서 공회당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으며⁴⁹⁾, 학교를 이용하는 경

47) 회령 청년회관 건축은 1923년 5월 23일에 상량식을 거행한다. (『회령청년회관 상량』, 『동아일보』, 1923.5.31.) 이후 회관 사용이 확인되는 최초의 행사는 7월 20일 경성여자고학생상조회 순회강연(『여고순강단에 동정』, 『동아일보』, 1923.7.28)으로, 늦어도 7월에는 회관이 완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48) 『교직자의 횡포』, 『동아일보』, 1924.2.17. 그 외 1926년 4월 20일 웅기소년단 주최 소년현상토론회 및 1926년 12월 18일 서강소년부 주최 소년문제토론회 또한 교회 측에서 공간 대역을 갑자기 불허하여 논란이 일어난 경우이다.

49) 이와 관련, 1925년 6월, 전주청년회에서 공회당 사용의 어려움을 성토했던 사례를

우에도 공립학교보다 시설강습소를 포함한 사립학교의 비중이 더 높았다.⁵⁰⁾ 이러한 상황에서 이를테면 극장과 같은 시설이 대안적인 공공 공간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나타났다는 점도 주목된다.⁵¹⁾

5. 대도시 토론회의 상업화와 미디어이벤트화

1920년대 토론회 문화를 살펴볼 때 주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경성 등 대도시의 토론회와 지방의 토론회 사이의 낙차이다. 1920년대 초반부터 대도시의 토론회는 많은 청중들을 모으면서, 점차 상업화·미디어이벤트화 되는 경향이 생기는데, 이에 따라 대도시 토론회의 연사 구성 또한

-
- 이야기할 수 있다. 즉, “전주 공회당은 대정 5년 전주물산공진회 시에 다수의 조선인 약간의 일본인으로써 조직된 협찬회에서 건축한 것임에 불구하고 관리와 일부 일본인으로 조직된 전주청년구락부의 전관(專管)에 속하여 타단체에서는 여하한 경우에든지 공회당을 사용할 시는 반드시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것이다. (『전주공회를 일인이 압탈』, 『조선일보』, 1925.6.4) 이러한 사례의 존재는 당대 조선인 중심의 사회단체들이 공회당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 50) 이 역시 당대 토론회가 불온한 것으로 생각되었던 사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사례로 1926년 4월 20일에 개최 예정이었다가 중지된 웅기소년단 주최 소년현상토론회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행사는 처음에 교회 건물을 사용하려 했으나, 전달 갑자기 사용이 불허됨으로써 공립보통학교를 포함한 다른 장소를 급히 물색했는데, 이때 학교장이 “소년단의 성질을 알 수 없으니 빌려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여 결국 토론회 개최가 무산된다. 관련 보도에서는 “무슨 사상단체와도 달라 순진한 소년의 교양을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들의 토론회에까지 무슨 “성질여하” 운운하는 학교장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웅기소년단주최 현상토론중지』, 『조선일보』, 1926.5.5)
- 51) 이와 관련, 이승희는 함흥 동명극장 등의 근대 극장이 강연회, 집회 등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서, 공회당과 같은 공공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사례를 밝히고 있다. (이승희, 『공공 미디어로서의 극장과 조선민간자본의 문화정치』, 『대동문화연구』 69,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실제 함흥 동명극장에서 개최된 토론회를 2건 확인할 수 있다. (『이혼은 가하나 부하냐』, 『동아일보』, 1925.5.19; 『이론상 전개된 산아제한의 거부』, 『동아일보』, 1929.2.4)

지방 토론회와는 달리 ‘명사’ 위주로 구성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당장 1920년부터 대도시의 대규모 연합토론회에서는 통상적으로 입장권이 판매되었다.⁵²⁾ 입장권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20~30전이었으며, 학생에게는 약간의 할인이 이루어지곤 했다.⁵³⁾ 토론회에서 입장권을 발매하는 주요 목적은 “입장자 제한” 및 “집합의 비용” 충당⁵⁴⁾이 언급되었다. 입장권 판매를 통해 대도시 토론회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행사가 되면서 주최 단체에 필요한 기금 마련을 위해 토론회가 개최되는 경우도 생긴다. 가령 1922년 3월 1일 남만주 강연단 토론회는 만주 강연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1924년 10월 28일 경성여자기독교청년회 토론회는 동정 기금 마련을 위해 각각 개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론회의 상업화 경향 또한 나타나는데, 노골적 사례로는 1928년 1월 24일 조선야담사에서 “유지비를 얻기 위해” 개최한 “결혼문제신춘남녀연합토론회”를 들 수 있을 것이다.⁵⁵⁾ 그와 동시에 이러한 상업화 경향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나타난다는 점도 주목할 수 있다.⁵⁶⁾

당대 토론회가 입장권을 판매하는 상업적 행사가 될 수 있었던 것에는 여러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여성 연사라는 새로운 구경거리의 등장이라는 점은 틀림없다. <그림 6>과 같이 당대의 강연·토론회는 단상에 오른 여성 연사의 신체를 분명하게 가시화했으며, 또한 토론회라는 형식을 통해 강단에 선 여성들이 남성들과 경쟁하는

52) 입장권 판매 기록이 처음 발견되는 것은 1920년 9월 16일 중앙예배당에서 개최된 엠투스청년회 주최 남녀연합토론회이다. 김일엽(김원주)과 송봉우 등이 연사로 참석한 토론회이기도 하다.

53) 기록상 입장권 가격이 가장 비싼 경우는 1927년 4월 15일 동대문 엠투스청년회 주최 전서울면려엠투스청년회연합토론회로서, 가격은 50전이였다.

54) 『입장료 받는 집회에는 학생의 출장을 거절』, 『조선일보』, 1925.5.27.

55) 『구정초에 열리는 결혼문제토론』, 『조선일보』, 1928.1.23.

56) 가령 1925년 5월초에 경성 시내 사립중등학교 교장 친화회에서 입장권을 발매하는 토론회, 운동회, 음악회, 무도회 등의 집회에 학생을 출전시키지 말자는 결의를 하기도 한다. (『입장료 받는 집회에는 학생의 출장을 거절』, 『조선일보』, 1925.5.27)

모습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토론의 가부편(可否便)을 여성 연사편 대 남성 연사편의 구도로 배치⁵⁷⁾한다든가, 토론 주제에 있어 대립적인 개념을 남성-여성의 구도로 배치⁵⁸⁾한다든가, 이혼, 연애와 같은 섹슈얼리티를 문제 삼는 선정적인 주제를 배치한다든가 하는 경향도 드러난다.⁵⁹⁾ 가령 광진부인회를 전신으로 삼는 반도여자청년회는 여성을 위한 강습소인 반도여자학원의 유지비 마련을 위한 남녀연합토론회를 여러 차례 열었는데, 이때 그 주제는 아래 <표 6>과 같다.



그림 6. 1924년 9월 26일 조선 여자청년회 토론회(『시대일보』, 1924.9.28)

표 6. 광진부인회, 반도여자청년회 주최 토론회 주제

날짜	장소	주제
1924.11.7	경성	여자구속의 원인이 금전이나 지식이나
1927.9.10	경성	현하 우리 조선사회에 남녀풍기문란한 그 원인이 남자에게 있느냐 여자에게 있느냐
1927.10.22	경성	가정풍파의 원인이 여자에게 있느냐 남자에게 있느냐

- 57) 가령 1920년 9월 24일 신여자사 주최 남녀연합토론회는 가편을 남성 연사로, 부편을 여성 연사로 편성하여 남성 대 여성의 구도를 연출하였다. 이 행사는 “특별히” 20전의 입장료를 받았으며, 종로청년회 근방 서점에서 발매했던 입장권이 이미 개최 하루 전까지 “설 새 없이 팔리어서 거진 다 없어지게” 되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남녀연합토론』, 『매일신보』, 1924.9.23)
- 58) 개최 기록에서 주제의 확인·분석이 가능한 1302건의 사례 중 ‘남성-여성’을 대립적인 개념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총 167회로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대립쌍이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대립쌍이 104회 발견되는 ‘금전-지식’이라고 볼 때, ‘남성 대 여성’이라는 토론 주제가 얼마나 큰 인기를 얻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 59) 이를테면 위에서 언급한 기금 마련을 위한 2건의 토론회 주제는 다음과 같다. ①1922년 3월 1일 남만주 강연단 주최 남녀연합토론회: ‘결혼의 요소는 연애나? 금전이나?’ ②1924년 10월 28일 경성여자기독교청년회 주최 기근동정토론회: ‘사회의 원동력은 돈이나? 사랑이나?’

1927.11.6	인천	가정풍과의 원인이 여자에게 있느냐 남자에게 있느냐
1928.2.4	인천	자유결혼이 가하다 중매결혼이 가하다
1928.6.29	경성	이성교제 방입의 가부
1930.10.25	경성	결혼의 요소는 금전이나 사랑이나

이러한 선정적 주제 중 큰 인기를 모은 주제는 이후 다른 토론회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이를테면 1924년 9월 26일 조선여자청년회 토론회(<그림 6>)는 ‘이혼의 원인은 남자에게 많으나? 여자에게 많으나?’라는 선정적 주제를 걸고 여성 연사만을 출연시킨 토론회였는데, 이 행사는 청중들이 “정각 전부터 걸음을 다투어 모여서 위 아래층에는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⁶⁰⁾ 큰 성공을 거두었다. 아래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러한 대성공 이후 이 주제는 1925년 1월까지 불과 6개월 사이에 이 행사를 포함하여 무려 8회 반복되기도 한다. 이혼 문제를 다룬 토론이 1920년대를 통틀어 전체 17건 발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표 7. 1924년 9월 조선여자청년회 토론회와 같은 주제를 다룬 토론회 목록

개최 일자	주최	주제
1924.9.26	조선여자청년회	이혼의 원인은 남자에게 많으나 여자에게 많으나
1924.10.11	시대일보 평강지국	이혼의 원인이 남자에게 많으나 여자에게 있느냐
1924.12.5	하얼빈기독교부인회	이혼원인이 남자의 과실이나 여자의 과실이나
1924.12.12	강화중앙청년회	이혼하는 원인이 남자에게 있느냐 여자에게 있느냐
1924.12.20	강화중앙청년회	이혼의 원인이 남자에게 있느냐 여자에게 있느냐
1925.1.13	단천신흥청년회	이혼의 원인이 남자에게 있느냐 여자에게 있느냐
1925.2.15	부산청년회	이혼의 원인이 남자에게 있느냐 여자에게 있느냐
1925.3.15	부산청년회	이혼의 원인이 남자에게 있느냐 여자에게 있느냐
1927.6.25	강화중앙청년회	이혼의 원인이 남자에게? 여자에게?

그 외 토론회의 식전·식후 행사로 흔히 포함되곤 했던 노래, 연주, 춤

60) 『여자끼리 다룬 이혼 문제 토론』, 『조선일보』, 1924.9.28.

-특히 여성이 공연을 하는 경우-등이 강조되는 경우⁶¹⁾도 이러한 상업화와 관련된 현상으로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토론회가 상업화되는 과정에서, 경성 등의 대도시에서 개최되는 토론회는 식민지 근대의 중요한 미디어 이벤트로 기능한 측면이 있다. 이미 1920년대 초반의 상황에서 경성의 토론회와 강연회는 근대 경성에 새로 유행하는 풍경으로서, 경성의 중요한 구경거리 중 하나로 생각되기도 한다.

경향을 막론하고 강연회니 토론회니 하여 연설이 많이 생긴다. 그러나 나는 농촌 구석에 집북되어 명사의 웅변이란 들을 기회가 적었다. 신문을 보면 대성황을 극한 토론회 대감상을 여한 강연회 등이 펍 많아 우리 사회의 새건설이 불일성지 할 것 같다. 더욱이 경성은 집회도 많거니와 고론도 많다. 한 번 경성의 연설을 듣는 기회를 얻기 원하였던 김이라 마침 십구일 유민회 주최의 대강연회가 있는 광고를 보고 분명한 중에도 만사를 제폐하고 청강하려 하였다. 나는 늘 신문에 무슨 회던지 만원의 만시의 탄이 많다는 기사를 읽었음으로 만일 늦었다는 대불행이라고 달음질하다시피 빨리 걸어 동아부인상회에서 입장권 한 장을 사가지고 부리나케 단성사로 향하였다.⁶²⁾

이렇게 경성 등지에서 토론회가 상업화, 미디어 이벤트화 됨에 따라, 그에 걸맞게 토론회의 연사를 전문적인 연사나 명사들로 구성하는 경우도 생긴다. 경성에서 열린 몇몇 토론회의 경우 “연사도 굴지하는 남녀웅변가”⁶³⁾나 “각계 명사”⁶⁴⁾, 즉 전문적 연사를 청하였다는 점이 토론회의

61) 1924년 11월 7일 경성 광진부인회 주최 남녀연합토론회가 대표적인 사례로, 관련 보도 기사는 “토론회가 마친 뒤에는 ‘땀쓰’, 독창, 음악 등 여러가지의 여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시내 통신』, 『조선일보』, 1924.11.6)

62) 황주 양암, 『경성 다녀와서』(속), 『동아일보』, 1921.12.16.

63) 『금일 우리 생활에는 구여자? 신여자?』, 『동아일보』, 1927.6.23. 1927년 6월 25일 경성여자기독교청년회 주최 하기토론회와 관련한 보도에서 사용된 표현이다. 다만 이 토론회에 참가한 연사들이 실제로 충분한 명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홍보 문구로 강조되기도 한다. 경성 등에서 기독교청년회나 학생 단체 등이 개최한 대규모 연합토론회의 경우, 각 참가 단체에서 가장 연설을 잘하는 대표들을 뽑아 경쟁시키는 형식을 취하곤 했다.⁶⁵⁾ 반대로 이러한 연합토론회 등을 통해 큰 인기나 화제를 얻은 연사가 유명 연사가 되어 다른 토론회·강연회에 초청되는 경우도 생긴다.⁶⁶⁾ 토론회의 연사를 당대의 명사들로 구성하는 경우도 보이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불과 몇 달 뒤 동아일보 사장으로 취임하는 고하 송진우를 비롯하여, 서춘, 김명식, 유진희라는 당대 사상·운동계의 30세 전후 명사들로 연사를 꾸리고 20전의 입장료를 받았던 1921년 7월 23일 서울청년회 토론회일 것이다. 당대 사상 운동의 일각을 담당했던 서울청년회 주최 행사답게 이 토론회는 ‘인류생존의 원칙은 경쟁인가? 부조인가?’라는 주제를 통해 상호부조론이라는 당대의 중요한 사상 문제를 다루면서, 이 분야의 권위 있는 명사들을 경쟁 토론이라는 형식으로 동원하여 커다란 미디어이벤트로서

64) 「각계 명사 등단」, 『조선일보』, 1930.12.14.

65) 앞서 언급했던, 정지용이 참여한 1920년 5월 22일 정동예배당 엠플스청년회 주최 남녀연합현상토론회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토론회는 경성 시내 각 예배당 엠플스청년회에서 “번설의 특장을 가진 사람”을 뽑아 연사로 초빙한 토론회였다. (『현상토론회』, 『동아일보』, 1920.5.21)

66) 바로 위의 각주에서 언급한 1920년 5월 22일 정동예배당 엠플스청년회 토론회에서 1등상을 수상한 권애라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이 토론회에서 권애라는 연설보다 ‘노래’를 부른 것으로 유명해졌는데, 이후 경성 강연계의 유명 연사로서 많은 강연회·토론회에 연사로 출석했지만 후에는 스캔들로 인해 대중들의 배척을 받았다. 1920년대 토론·강연 문화에 있어 권애라와 같은 문제적 여성 연사의 활동은 매우 흥미롭다. 1920년대 권애라의 행적에 대해서는 「권애라 여사의 최근 생활」(전 3회)(『동아일보』, 1925.10.11~14)과 같은 당대 보도 기사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기사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권애라가 당대 강연·토론회계의 화제의 인물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권애라의 강연 활동과 그것이 보여주는 의미에 대해서는 신지영, 앞의 책, 190-196쪽에 비교적 상세히 분석되어 있다. 한편 성균관대학교 박진영 교수의 블로그 <반거들충이 한무릎공부>에 (<https://blog.naver.com/bookgram>)에 10회 연재된 「파란만장 권애라 여사 청춘기」는 위의 신문기사 등을 바탕으로 권애라의 삶을 실증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토론회를 조직하려 한 대표적인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생존경쟁론 대 상호부조론의 일대결전을 試하는” “공전의 대토론”이 열린다는 소식에 대한 희열을 『동아일보』에 투고⁶⁷⁾한 독자가 생길 정도였던 것이다.

6. 토론회의 연사와 청중, 식민지 대중미디어로서의 1920년대 토론회

토론회가 1920년대 청년회 운동의 핵심적인 사업 중 하나로 추진되었다고 할 때, 정치적 집회가 허용되지 않는 식민지적 상황⁶⁸⁾에서 이러한 토론회의 목적은 대체로 지식의 획득과 연설 능력의 향상으로 규정되었다. 이를테면 “지식 교환과 응변을 연습할 목적”⁶⁹⁾ 같은 표현은 당대 토론회의 일반적 목적을 잘 보여준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당대 토론회에 관한 보도기사에서 ‘지식의 전달’이라는 표현보다 ‘지식의 교환’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자주 보인다는 것이다.⁷⁰⁾ 이는 앞에서 언급했던 바, 토론회의 연사가 전문적 연사나 문화적 엘리트가 아니라 학생·청년으로 상정되었다는 점과 관계된다. 즉, 강연회와 토론회의 경우, 적어도 그 토론회를 주최하는 기관의 내부 구성원들과 연사들은 위계화되지 않은 평등한 관계로서 서로 대등하게 ‘지식을 교환’하는 사이로 상상되었다.

67) 赫怒, 「생존경쟁 대 상호부조의 토론회 개최에 대하여」, 『동아일보』, 1921.7.22.

68) 1920년대 토론회 중 일부는 ‘정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이유로 개최가 불허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1926년 3월 16일 청엽정 광활청년회에서 개최하려고 했던 토론회는 ‘인류가 향상함에는 정치가 勝於 경제’라는 주제가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금지당한다.

69) 「고창읍교회토론회」, 『동아일보』, 1921.8.7.

70) 「평양청년토론회연기」, 『매일신보』, 1921.6.16; 「고창청년회토론회」, 『동아일보』, 1921.8.20; 「기자단토론회」, 『동아일보』, 1923.1.15; 「금남청년회의 활동」, 『조선일보』, 1924.6.15; 「윤씨의 교육열」, 『매일신보』, 1924.12.21 등.

하지만 토론회 연사 구성의 계급성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문제이다. 대도시의 대형 토론회에서 문화적 엘리트로서의 전문 연사들이 활약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과 함께, 지역의 경우에도 청년회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토론회 연사를 청년회 임원 및 활동가들이 맡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1920년대 초반의 청년회 운동이 “지주와 상공인·신문기자나 교사” 등 “지역사회에서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높은 계층에 속하는”⁷¹⁾ 사람들이었다고 할 때, 이들은 대체로 문화적 엘리트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거나, 최소한 지역 내에서만큼은 상대적으로 지적·문화적 엘리트에 속하는 청년·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토론회가 이를 주최하는 회(會) 및 연사들의 바깥에 있는 ‘청중’들을 겨냥할 때, 여기에는 회 내부의 계몽된 구성원들의 담화를 통해 회 외부의 계몽되지 않은 청중들에게 지식을 전파한다는, 지적 위계에 의한 계몽의 구도가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점에서 교육 받은 아동들의 토론으로 학부형들이 각성하게 된다는 다음의 사례는 온전히 미답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

정주군 곡산면 남당동 하단은 연래로 상당한 교육기관이 무하여 아동으로 하여금 신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고 다만 유아무야의 구식서당으로 왈천왈지와 천황지황이나 교육하여 …(중략)… 서당제도를 일신개량하고 교사 김인정씨를 연빙하여 개량서당의 학과로 열심교육하는 바 …(중략)… 차 토요일마다 토론 급 강연회를 개하여 수구인사로 하여금 각성을 주어오던 중 8월 17일(토요) 토론회에서는 ‘아 조선의 급무는 여자교육’이란 제로 …(중략)… 호상토론하여 방청하는 노년의 학부형들을 경탄불기케 하였더라⁷²⁾

그럼에도 1920년대의 토론회는 연사를 주최 단체의 내부 구성원으로만 한정시키지 않기 위한 여러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었다. 사전신청

71) 박철하, 『청년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2009, 22쪽.

72) 『남당동 개량서당』, 『동아일보』, 1921.8.26.

등의 방식으로 연사를 공개모집하는 토론회⁷³⁾가 적지 않았으며, 이 경우 연사는 나이나 거주지 등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누구든지 될 수 있는”⁷⁴⁾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또한 성격이나 지역이 다른 타단체와의 협력⁷⁵⁾ 등을 통해 계층과 학력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연단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또한 토론회의 연단에는 이름난 명사가 아닌 그보다 이름이 덜 알려진 사람들이 올라야 한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토론회에 대한 일반적 인식의 하나이자, 토론회 개최 단체들에 의해 종종 요구되거나 권장되던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점에서 토론회의 연단은 강연회 등 다른 구술적 미디어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훨씬 넓은 범위의 대중들에게 열려 있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앞서 언급했듯이 토론회는 때때로 강연회보다 수준이 낮은 것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토론회 연사의 수준을 문제 삼는 것은 토론회에 대한 소감·논평에서 매우 자주 발견된다.

청년회 토론회예를 구경을 갔더니 어찌면 그 모양으로들 하는지 들을 수가 없습니다. 토론회이고 강연회예를 개최하려거든 공부들을 좀 하고 열었으면 좋겠어요.⁷⁶⁾

73) 1924년 8월 5일 강원도 이천학우회 덕예부 주최 소년현상토론회; 1924년 9월 20일 전주청년회 지육부 주최 중등학생 토론회; 1924년 11월 1일 개성고려청년회 주최 현상토론회; 1925년 2월 17일 안변청년회·소년회 공동주최 현상토론회; 1925년 5월 15일 원산독서인구락부 주최 소년소녀 현상토론회; 1926년 8월 10일 진주 재동경유학생구락부 주최 토론회; 1928년 8월 4일 현대부인사 강화지사 주최 현상부인토론회 등.

74) 『진주유학생토론』, 『동아일보』, 1926.8.9.

75) 이와 관련, 유승환은 1923년 당시 일용 노동자였던 최서해의 토론회 참가에 대해, 토론회의 다른 연사들이 회령청년회의 임원 및 활동가들로서 최서해보다 사회적 지위나 학력이 높았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당시 회령청년회와 지역 내 노동조직의 조직적 협력을 통해 최서해가 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추측한 바 있다. (유승환, 앞의 글, 231-236쪽)

76) 계동생, 『독자구락부』, 『매일신보』, 1921.4.21.

토론회의 질적 수준, 혹은 연사의 지적 수준 및 연설 능력을 폄하하는 이러한 종류의 논평은 매우 흔한 것이지만, 정확히 말해 이는 토론회 연사들의 지적·문화적 수준이 청중들에게 권위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을 보여주는 것에 가깝다. 다시 말해 이는 1920년대 토론회 문화에서 연사-연사의 관계 뿐만 아니라, 연사-청중의 관계에서도 또한 일방적 계몽의 구조가 쉽게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사의 자리가 보다 넓은 대중들에게 열려 있었다는 점과 함께, 지적 수준이 앞서서 엘리트에 의한 대중의 계몽이라는 구조가 그렇게 쉽게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은 1920년대 토론회가 가지는 대중미디어로서의 가능성, 즉 대중들 스스로의 감정과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미디어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실제로 1920년대의 토론회는 무학자·무산자들이 그들 스스로에 의한 배움을 조직하기 위해 전유했던 형식이기도 했다. 경성의 상업화된 토론회와는 달리 지방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눈에 띄는 현상은 교육을 받기 위한 충분한 물질·문화적 자원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무산 대중들이 스스로를 위한 교육 혹은 교양의 형식으로서 토론회라는 형식을 차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미담을 보자.

함북 명천군 아간면 신계동에서는 소년들이 모여 매야 토론을 한다는 데 동리 청년들이 몇 해 전부터 강습소를 설치하여 인재를 양성하던 바 재정곤란으로 말미암아 일년 전부터 교문을 닫게 되자 부득이 소년들이 자발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다는데 수십 명이 모여 대성황리에 매야 끝일 사이 없이 한다더라 77)

이러한 사례에서 토론회는, 식민지 교육기관의 서열에서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강습소마저도 이용할 수 없게 된 소년들이 자신들을 스스로 교육·교양하기 위한 ‘자발적’ 형식으로서 전유된다. 실제로 1920년대 중

77) 「아간 소년들이 토론회 개최」, 『중외일보』, 1928.8.26.

반을 지나면서 노동단체나 야학에서 개최하는 토론회가 눈에 띄게 증가하며, 1920년대 중후반 농촌 야학이나 노동 야학에서 토론은 매우 일반적인 교과목이었다.⁷⁸⁾

무산자의 남녀들이 학교에 통학치 못하고 도로에 방황함을 유감으로 생각야 …(중략)… 남녀야학부를 설립하고 남녀 80여명을 수용하여 강사 김수천 이흥우 양군이 열심 교수하든 중 거 10일 하오 8시에 남녀연합토론회를 거하고 …(후략)…⁷⁹⁾

노동야학을 설치하고 동리 노동자들을 모집하여 교수하는 중 더욱 계급의식을 위하여 연설회를 자주 개최하고 거 3일 夜에는 동리 보용학원 강당에서 『이상적 사회를 건설하려면 금전이나 노동이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대대적 성황을 이루었다더라 ⁸⁰⁾

물론 이러한 야학 토론회에서 연사를 맡은 것은 무산자 혹은 노동자 대중이다. 동시에, 두 번째 인용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무산자의 토론회에서 토론의 목적은 단순한 웅변 교육이 아니라, “계급의식을” 위한 것으로 사고되는 경향도 나타난다. 여기서 계급 의식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정치적·이념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표현에는 야학이 주최한 노동자의 토론회가 노동자라는 그들의 계급적 기반으로부터 형성되는 이들의 공통적인 정체성과 생각들을 형성하기 위한 계기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이때 이 토론회는 주제⁸¹⁾를 고려할 때, 바로 ‘금전’ 혹은

78) 『농무야학창립』, 『동아일보』, 1926.2.16; 『용천부라에 농민야학개강』, 『조선일보』, 1927.11.19; 『김제군 용수리』, 『조선일보』, 1928.3.10 등.

79) 『청년기타집회』, 『조선일보』, 1924.10.21.

80) 『노동야학설립』, 『조선일보』, 1924.12.20.

81) 1920년대 토론회 주제에서 ‘금전-노동’의 대립쌍은 총 3회 정도 밖에 나타나지 않는 드문 주제이다. 대신 ‘금전-노력’의 대립쌍은 44회 나타나는 이 시기 대표적인 토론 주제 중 하나이다. 이 점에서 ‘금전-노동’이라는 독특한 주제는 ‘금전-노력’이라는 일반적 토론 주제가 변이된 형태로 보인다. 한편 ‘노동-자본’의 대립쌍이 10회 보인다는 점도 참고할 수 있다.

‘자본’에 맞서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옹호하는 형태로 제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1920년대의 토론회는 그 성격이 무척 다양했으며, 이에 따라 토론회의 연사들 또한 다양한 계급적 기반 및 학력 수준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다. 문화적 엘리트들이 화려한 변설을 뽐내던 대도시 경성의 토론회와 공적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한 무산자 대중들이 스스로 조직하는 시골 야학의 토론회가 동시대에 존재했다. 이 점은 토론회라는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개방성을 같이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1920년대의 토론회가 식민지 대중들에게 전유된 대중미디어로서, 식민지 하위주체 대중들 자신의 목소리를 공적으로 표현하며, 이들의 집단적 생각, 감정, 의사를 형성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미디어로 기능할 수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어 토론회 청중과 관련한 문제를 검토하려 한다. 1920년대 신문에 보도된 토론회는 대체로 공개토론으로서 청중에 제한이 없었다. 먼저 청중 규모를 본다면, 1920년대 토론회의 성격이 다양했던만큼, 토론회의 성격과 규모, 주제의 주목도, 그리고 토론회 개최 공간의 규모에 따라 그 규모는 달라졌다. ‘수백 명’이라는 식으로 애매하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정확성을 충분히 신뢰하기도 어렵지만, 당대 신문기사에 의거한다면 이 시기 토론회의 청중 규모는 적게는 30~40명⁸²⁾에서 많게는 수천 명⁸³⁾까지로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100~600명 정도로

82) 1922년 9월 30일 강경 청년간담회 주최 토론회; 1923년 7월 16일 봉천 조선인청년회 주최 토론회; 1925년 6월 20일 마산 신화소년회 주최 토론회 등. 이중 강경과 마산의 토론회는 공간의 협소함이 문제가 된 경우이다. 봉천의 토론회의 경우 우천 관계로 참여가 저조했다는 점이 언급되고 있다.

83) 1924년 2월 2일 관북불교청년회 주최 노인토론회; 1925년 5월 25일 원산 독서인구락부 주최 소년소녀현상토론회; 1928년 10월 26일 갑산군 운흥면 운용리 사립육영학교 주최 토론회. 이 중 육영학교 토론회는 학예전람회의 부대행사로 진행된 경우이다. 한편 천여 명 정도로 청중 규모를 기재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다. 하나의 사례만 든다면 1924년 7월 17일 조선여자청년회 주최로 종로청년회관에

기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시 말해 1920년대 토론회는 일반적으로 적지 않은 수의 청중들이 모이는 대중 집회의 성격을 가진다.

청중의 구성에 있어서는 청중의 계층별, 성별 구성 등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기록한 경우가 많지 않아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단편적인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1920년 6월 26일 운산 북진업위스청년회 문학부 주최 정기토론회의 경우, 회원이 160여명, 광동학교 남여학생 및 시내 인사가 150여명, 1921년 12월 27일 군산부 개복동 예배당내 기독교청년회 주최 토론회의 경우, 회원 100여명, 방청 6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보도된다. 한편 1926년 1월 19일 동광청년회 주최 토론회의 경우, 전체 참석인원 620명 중 남성 500명, 여성 120명이 참석한 것으로 보도되며, 1930년 7월 4일 시천교 여성단 토론회의 경우, 이 행사에 대한 경찰 자료⁸⁴⁾는 청중 총 700명 중 남성 400명, 여성 3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반화하기 어려운 사례들이지만, 이러한 사례들로부터 특히 지역 단체 주최 토론회의 경우, 크게 보아 주최 단체 소속 회원과 외부 방청객들로 청중이 대별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는 있다.

중요하게 지적해야 할 문제는 1920년대 토론회의 청중들을 단순히 수동적인 구경꾼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강연이나 연설과 같은 다른 구술 미디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토론회의 청중들은 연사들의 발화 내용에 대한 박수, 환호, 야유, 환화 등을 통해 연사들의 발화 내용, 발화 방식, 토론의 진행 과정과 절차 등에 대한 집단적 의사를 표시⁸⁵⁾할 수

서 열린 여자토론회로, “정각 전에 장내 상하층에는 천여 청중이 입추의 여지조차 없을만치 모여들었으며 그의 회장 밖에도 수백 명 군중이 모여들어 토론 중에 입장에 제한이” 있었다고 보도된다. (『대성황을 극한 현상여자토론회』, 『매일신보』, 1924.7.19)

84) 『學生風紀問題討論會開催狀況の件』(京鍾警高秘 10179), 『思想ニ關スル情報綴』 第7冊, 1930.07.04, 51頁.

85) 신지영 또한 1920년대 연설 문화에서 청중들이 연설 문화의 관례에 익숙했으며, 박수를 보내거나 야유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강연자나 토론자들의 권위를 넘어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

있었다. 토론회의 경우, 청중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극대화되었는데, 이는 1920년대 토론회의 특징적 절차로 ‘속론’과 ‘승패 판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속론은 가부편 연사들의 교차 토론이 종료된 이후 이루어지는 청중들의 자유로운 후속 발언을 말하는데, 이러한 속론은 1920년대 토론회가 가진 불온성의 중핵에 놓인 것이자, 토론회의 인기에 있어 많은 몫을 담당하기도 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청중들은 토론 주제 및 연사들의 연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말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승패 판정’은 가부편 토론에서 어느 쪽이 승리했는지를 판정하는 절차로서, 대체로 심판원 판정 혹은 거수 표결을 통해 진행되었다. 이러한 ‘승패 판정’을 특히 표결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청중들은 투표를 통해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가능했고, 심판원 판정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판정 결과에 대한 청중 반응을 통해 집단적 혹은 계층적·젠더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다.⁸⁶⁾

1920년대 토론회의 청중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이러한 다채로운 수단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또한 강연회 등과 비교해 토론회 연사의 권위가 충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으로 인해, 1920년대 토론회의 현장은 실은 청중들과 다른 주체들-연사·주최 단체·임석경관·심지어 다른 청중 무리들까지-사이의 갈등이 형성되고 그에 따른 소란과 소요가 늘상 발생하곤 하는 장소였다. 실은 이러한 소란과 소요야말로 1920년대 토론회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그리고 미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사례를 보자.

다. 이 점에서 신지영은 이 시기의 청중들이 “일방적인 계몽의 대상이라기보다 화자에게 은근한 압력을 행사하는 층으로서 조직”되었으며, “1920년대 강연회의 활기를 좌우하는 것은” 이러한 “화자와 청자의 관계성”에 있다고 지적한다.(신지영, 앞의 책, 140-145쪽)

86) 이 시기 토론회의 절차적 규범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속론’과 ‘승패 판정’의 의미에 대해서는 후속 논의를 기약하고자 한다.

다소간이라도 연구한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 하여 당지 성공회전도 사인 윤달용씨가 이 문제에 대한 소감이라고 말을 하게 되었다. 허나 그의 하는 말이 소감도 아니요 비판도 아닌 요령부득의 말을 많이 함으로 일반 청중들은 그 기대하였던 바와는 너무도 틀림으로 듣던 청중들은 듣다 못해서 일이차나 휘방을 하였더니 연사는 그것으로 감정을 넘인지 청중들을 무시함 인지 그만 중도에서 퇴장하고 말았다. 그래서 청중은 매우 분개하여 연사의 경망한 행동을 사회하는 이에겐 질문이 나기 시작하여 혹은 그의 행동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니 다시 이 자리에 데려다가 사죄를 받자는 등 혹은 최후의 방침을 쓰자는 등으로 장내는 일시 매우 소란하였으나...(후략)...⁸⁷⁾

1924년 12월 20일 강화중앙청년회 주최 남녀연합토론회에 대한 보도로, 토론 종료 후 주제에 대한 소감을 청해 듣는 이례적 상황에서 생겨난 소란을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연사는 “다소간이라도 연구한 사람”의 자격으로 연단에 서는데, 이는 연사의 권위가 토론회장에서 일시적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연사의 말이 청중들이 “기대하였던 바”와 어긋나는 것을 감지하자마자 청중들은 그의 말을 “요령부득”이라고 여기며 권위에 대한 인정을 철회하며, 연사의 의견에 동의하지 못함을 표시하기 위해 ‘휘방’을 놓는 행동으로 즉각적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한다.

위 사례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청중의 반응에 분노한 연사가 토론회에서 퇴장하자, 청중들이 곧바로 사회자, 즉 주최측에 대한 공격으로 공격의 대상을 옮기며, 이에 따라 장내에 극도의 소란이 발생한다는 것, 즉, 토론회의 청중들은 단순히 연사의 발언 내용 뿐만 아니라, 회의 진행의 올바른 과정과 절차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당대 토론회의 청중들은 토론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주최자를 맹렬히 공격하며 그 책임을 묻곤 하였다.

경찰 측에서는 정연 이외에는 대리인의 토론이나 속론을 절대 허락치 않는다 하여 극도로 흥분된 청중은 마침내 주최자측의 무능력과 실태를

87) 『강화남녀토론』, 『조선일보』, 1924.12.24.

들어 질문 혹은 공격을 하는 등 장내는 자못 어지럽게 되어 토론회는 그로 양편의 가부 결정도 못하고 산회하여 버렸다더라.⁸⁸⁾

1920년대 토론회는 이처럼 청중들의 적극적 의견 표출에 의해 발생한 소요와 소란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점에서 당대 연설 문화에 대한 담론들은 청중들의 무례함, 토론회·강연회의 규범에 어긋나는 일탈 행위 등을 비판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당일은 공전한 성황을 이루었음에 따라 무전례한 청중의 조롱(소위 야차)이 빈발하여 주최자측에서는 차를 제지하였으나 嘲弄黨은 의견 계속 하였음으로 필경 종료 귀산할시에는 양자 간에 다소의 구론이 있었다. …(중략)… 피등은 추호도 집회의 체면을 고려치 아니하고 방청원의 기품을 성로치 아니하여 악구잡성으로써 자감하는 소이라 오인은 소위 조롱을 가증히 여기노라 …(중략)… 현하 아 조선사회의 강연, 토론, 기타 연설 같이 무주의, 무정견한 변론은 다시 없을지니 피등은 일정한 연제에 就하여 변론을 시하다가도 박수의 환영을 받지 못하면 즉시로 자기의 소신과 주장을 꼭하고 무용한 흥분제적 수단이나 우는 도히 선을 탈하여 결국 시중불일치한 晷설을 장론함이 비밀비재이다.⁸⁹⁾

모군이 나와 조선의 경제상황의 실제 정황이 어떠한 것을 예증하기 위하여 …(중략)… 숫자상의 통계를 들고 조선인의 정신적 노력의 어떠한가에 따라서는 오히려 할만한 바 있는 것을 역설하는 중에 청중은 모두 略하여 버리라고 요구하고 한참 晷화함을 말지 않았다. 숫자적 열거가 매우 건조무미한 것이지만은 그것을 허놓고 듣기 싫다는 것은 꼭 재미 없는 경향이다. 토론회 그것이 얼마큼 時의 침울한 기분을 풀자함이었 다고도 하겠지만은 필요한 현실의 숫자적 표시를 잠깐 듣기가 갑갑하다고 晷화로써 방해한다는 것은 얼마큼 당면한 중대문제에 대하여 진지를 결함이라고 감수된다.⁹⁰⁾

88) 『여자단발가부토론』, 『동아일보』, 1926.1.21.

89) 정과, 『소위 연설 조롱』, 『동아일보』, 1921.7.18.

90) 『觀남녀토론회』, 『조선일보』, 1927.4.17.

두 인용문 모두 ‘조롱’, ‘훗화’ 등 토론회 청중들의 무례함을 문제 삼고 있다. 동시에 첫 번째 인용문은 연사가 청중 반응에 따라 자신의 발언을 바꾸는 “무정견한” 태도를 비판하고 있는데, 여기서 반대로 1920년대 토론 문화에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청중들의 의견이 심지어 연사의 발화 내용에 대한 즉각적 수정으로 이어지기도 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인용문에서는 청중의 반응과 평가가 토론 내용 뿐만 아니라 주장을 제시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도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장에 대한 학술적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인 통계 인용에 대해 청중들의 훗화가 나타났다는 것은 토론회의 청중들이 기대하는 바가 단순한 학술적 지식의 획득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어 흥미롭다. 아울러 청중들의 무례함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이과 같은 담론의 출현은 한편으로 근대 연설 문화의 까다로운 규범이 식민지 대중들에게 내면화·신체화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 점에서 당대 청중들이 개화기 이후 확립되어 나간 근대적 연설문화의 의식과 규범에 의해 전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존재였다는 점을 아울러 드러낸다.

이상 연사와 청중을 중심으로 토론회 참여 주체들의 구성 및 성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920년대 토론회가 가진 식민지 대중미디어로서의 독특한 가능성이다. 한편으로 토론회의 연단은 다른 어떤 문자 및 구술 미디어보다도 넓은 범위의 대중들에게 열려 있었으며, 또한 토론회에 참석한 익명적 대중들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토론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자신들의 집단적 의사를 표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빈번하게 나타나는 소요는 엘리트와 대중의 지적 격차에 근거한 계몽의 구조를 지속적으로 전복·전도시킨다. 이러한 점에서 토론회는 식민지의 하위주체-대중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사, 감정 등을 표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중미디어로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7. 1920년대 토론회의 유형

1920년대 토론회의 명칭은 보통 다양한 접두사가 붙은 합성어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일차적으로 토론회의 참여 주체에 의해 구분된다. 이를테면 ‘연합토론회’라는 표현이 매우 자주 사용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토론회에 참여하는 단체가 여럿일 경우 사용되는 표현이다. 행사의 주최는 1개 단체에서 맡는다고 하더라도, 연사를 여러 단체에서 초빙할 경우 연합이라는 접두사가 붙는다. 가령 위에서 몇 번 언급한 바, 정지용이 참여한 바 있는 1920년 5월 22일 정동예배당 엠투스청년회 주최 남녀연합현상대토론회는 서울 소재 주요 교회에서 대표 연사를 선발하여 진행한 행사이다. 한편 1920년대 토론회 문화가 성행하며, 서로 다른 지역의 청년 단체들이 같이 참가하는 대규모 연합토론회가 나타나기도 했다. 1925년 10월 31일 전북 지방 여러 청년단체들이 공동주최한 연합토론회가 대표적인 경우로서, 이 토론회는 이후 13개 단체들이 참여한 전북청년연맹 발기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⁹¹⁾

그 외 토론회의 명칭에 ‘남녀’, ‘여자’, ‘소년(소녀)’, ‘학생’ 등이 붙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모두 토론회 연사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는지를 뜻한다. 먼저 ‘남녀’는 보통 ‘연합’이라는 말과 함께 ‘남녀연합토론회’라는 식으로 표기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당연히 남녀가 함께 연사로 편성된 토론회를 의미한다. 여기에 연합이라는 말이 붙는 이유는 1920년대 청년회를 비롯한 각 단체가 보통 남성·여성 단체로 나뉘기 때문에, 남녀 연사가 같이 편성된 경우 자연스럽게 연합토론회가 되기 때문이다.

‘여자토론회’는 여성들만을 연사로 한 토론회에 붙는 명칭이다. 대체로 각 지역 여자청년회, 여자기독교청년회에서 개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발견된다.⁹²⁾ 여자토론회의 청중 및 속론 연

91) 『연합토론회를 기회로 전북청년조직』, 『동아일보』, 1925.11.5.

92) 1921년 12월 24일 원산천도교청년회 주최 여자토론회가 여성 단체가 아닌 단체

사는 보통은 남녀를 가리지 않았으나, 여성으로 제한한 경우도 없지 않았다.⁹³⁾ 특히 여자토론회에서 속론 참여를 여성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생긴 것은 여성이 참여한 여자토론회 혹은 남녀연합토론회에서 여성 연사나 여성 일반에 대한, 여성혐오에 가까운 공격적인 언사들이 나타났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서는 후술할 것이다.

소년 혹은 소년소녀 토론회는 말 그대로 어린이·청소년을 연사로 삼는 토론회를 의미한다. ‘소년토론회’와 ‘소년소녀토론회’라는 표현이 일반적이며, ‘소녀토론회’⁹⁴⁾라는 표현은 거의 쓰이지 않았지만, ‘소년토론회’에도 여성 연사가 참여한 사례는 얼마든지 발견된다. 이러한 소년(소녀)토론회의 경우 연사의 나이를 공식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그 기준은 그때그때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⁹⁵⁾ 소년(소녀)토론회에서 드러나는 특징 중 하나는 토론 주제의 추상화가 더욱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대부분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소년(소녀)토론회에서는 “秋勝於春”⁹⁶⁾, 심지어 “자식을 사랑하는 데는 아버지냐? 어머니냐?”⁹⁷⁾와

에서 개최한 여자토론회 사례이다. 이 토론회는 청년회 내부 여자강습생을 중심으로 열렸다고 보도된다.

93) 청중을 제한한 사례로 1920년 5월 1일 조선여자교육회 주최 토론회 및 1921년 11월 27일 군산기독교청년회 주최 토론회가 있다. 이 중 군산기독교청년회의 경우 ‘명주가 무명보다 낫다’는 것으로 가사와 관련한 주제의 토론을 진행한 경우이다. 한편 속론 참여를 여성으로 제한한 사례로 대표적인 것은 1924년 9월 26일 조선여자청년회 주최 토론회이다.

94) 1928년 3월 4일 고창소년회 주최 소녀토론회의 사례가 있다.

95) 1924년 7월 28일 청진소년단 주최 현상토론회 및 1925년 2월 11일 강화중앙청년회 주최 제1회 소년소녀현상토론회, 1925년 11월 30일 조선일보왜관지국 주최 소년소녀현상토론회의 경우는 연사의 나이를 20세 이하로 제한했으며, 1924년 1월 28일 밀양소년단 주최 소년현상토론회의 경우 22세 이하로, 1925년 2월 1일 평양체관리 후진청년회 주최 제3회 전평양 소년소녀현상토론회의 경우 13-17세로, 1925년 11월 28일 성천기독교소년회 주최 현상토론회의 경우 16세 이하로 제한했다. 한편 1923년 5월 19일 수원 애플스청년회 주최 소년현상토론회와 같이 ‘조선인 소학생’, 즉 학생 신분을 기준으로 삼은 경우도 존재한다.

96) 1921년 7월 9일 정주 유년주일학교 주최 소년토론회.

97) 1925년 10월 31일 마포청년회 소년부 주최 소년운변회.

같이, 1920년대 토론회의 일반적 주제보다도 더욱 추상적인 주제가 활용된 경우가 자주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소년(소녀)토론회는 대체로 연설 교육이라는 맥락에서 시행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추측되며, 실제로 소년(소녀)토론회의 경우, 토론회 형식을 취하면서도 ‘웅변회’로 명명된 경우도 종종 보인다.⁹⁸⁾

‘학생토론회’는 말 그대로 토론회 연사를 각급 학생으로 편성한 경우인데, 1920년대 토론회 문화에서 학생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부기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각급 학교의 교우회, 동창회 등은 1920년대 토론회의 중요한 주최 기관이었으며, 또한 이 시기에는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각 학교 내에서 토론·강연 행사를 조직하고 실행하는 씨클이나 부서 등이 상당수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⁹⁹⁾ 또한 지역 유학생들로 구성된 지역별 유학생회는 방학 귀경 기간 중 해당 지역 청년들과 연합하여 토론회를 포함한 다양한 학술·문화 행사를 벌이기도 하였다.¹⁰⁰⁾ 아울러 정규 학교가 아닌 유년주일학교, 야학이나 사설 강습소에서 주최한 토론회 기록도 상당수 보인다. 다만 공립학교의 경우 토론회가 불온시됨에 따라 학생들의 토론회 참여에 제한을 가한 사례들이 자주 보인다.¹⁰¹⁾

98) 『소년동아일보』, 『동아일보』, 1925.2.4; 『소년동아일보』, 『동아일보』, 1925.11.4. 등.

99) 휘문고보 문우회(『휘문고의 개혁운동』, 『동아일보』, 1920.6.7), 강계 영명중학교 토론부(『영명토론회 강연회』, 『동아일보』, 1921.6.4), 이화전문 이문회(『새봄을 맞는 각 여학교 운동선수의 자랑』, 『조선일보』, 1925.4.23) 등의 사례가 확인된다.

100) 1922년 8월 2일 담양 유학생회 주최 토론회; 1924년 8월 22일 간성 수성청년회 주최 유학생현상토론회; 1925년 8월 14일 운산 하기 아동성경학교 주최 유학생 토론회; 1925년 8월 15일 강릉군 재외유학생 연합친목회 주최 토론회; 1925년 8월 21일 사리원 유학생학우회 주최 토론회; 1927년 3월 29일 연백군 백천유학생학우회 주최 현상토론회; 1927년 8월 12일 경북 안동 재외유학생회 주최 기념토론회; 1927년 8월 19일 울산 유학생학우회 주최 토론회; 1928년 8월 5일 재외 영흥 유학생학우회 주최 토론회 등.

101) 1925~26년 부산·신고산·경주 등지의 공립보통학교에서 퇴학 등의 징계를 언급하며 학생들의 토론회 참여를 제한하는 사례들이 발견된다. (『소년동아일

특이 사례로 ‘노인토론회’가 있다. ‘노인토론회’는 1924년 2월 2일 관북 불교청년회에서 주최한 행사로, “부자유한 철창에 쌓여 있는 것과” 같은 “부형”들의 “언론 연습”을 위한다는 목적 하에 개최되었으며, 연사 연령을 만 45-80세로 제한한 특이한 경우이다.¹⁰²⁾ 한편 토론회 명칭에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토론회 연사 문제와 관련해 드물게 ‘수의토론’¹⁰³⁾ 혹은 ‘자유등단’¹⁰⁴⁾과 같은 개념도 보이는데, 이는 토론 연사를 미리 정해 두지 않고 현장에서의 자유 등단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경우이다.

한편 ‘현상토론회’는 토론회 참가 연사 중 토론 우수자를 선발하여 시상을 하는 토론회로서, 대도시의 대규모 연합토론회는 물론이고 지방의 토론회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일반적 형태 중 하나이다. 연사에 대한 시상 뿐 아니라 속론 참여자에 대한 시상을 같이 시행했던 경우도 보인다.¹⁰⁵⁾ 수상자 선정은 주로 심판원들이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며, 평가 점수를 공개한 경우도 드물게 보인다.¹⁰⁶⁾ 상품의 경우, 초기에는 서적

보, 『동아일보』, 1925.2.4; 『공보학생은 토론도 못한다』, 『조선일보』, 1925.4.22; 『소년회참가자는 단연퇴학처분』, 『중외일보』, 1926.12.20) 1923년 함흥고보에서는 학내 토론회 중 학생의 과격한 말이 발단이 되어 해당 학생이 체포되는 등의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다.(『함흥고보에 불온낙서』, 『동아일보』, 1923.11.6) 경우가 조금 다르지만 대전중학교에서 조선인 중심으로 설립되어 강연·토론 활동을 했던 ‘선우회’가 조선인 학생만의 회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교장의 명령에 의해 해산된 사례도 있다.(『조선학생회합은 융화에 방해라고 해산을 명한 학교』, 『동아일보』, 1922.9.26)

102) 『노인토론일대성거』, 『조선일보』, 1924.2.8.

103) 1923년 6월 3일 평강청년회 주최 월례토론회; 1924년 10월 11일 시대일보 평강 지국 주최 남녀병합현상토론회(『육월연례회』, 『조선일보』, 1923.6.4; 『집회와 강연』, 『시대일보』, 1924.10.4). 강원도 평강 지역에서 토론회를 운영하던 특이한 방식일 수 있다.

104) 『동래청년토론』, 『동아일보』, 1925.11.14.

105) 1920년 5월 22일 정동예배당 엠플스청년회 주최 남녀병합현상대토론회; 1923년 4월 6일 조선여자청년회 주최 여자현상토론회; 1923년 5월 15일 나일청년회 주최 제1회 정기토론회; 1926년 11월 19일 호수돈보통여학교 학생회 주최 현상토론회 등.

106) 1923년 1월 25~26일 평양기독교청년회 주최 신년맞이 대토론회; 1925년 12월

류¹⁰⁷)가 많았으나, 그 뒤 메달이나 상패¹⁰⁸)가 보다 일반적인 것이 된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시계¹⁰⁹)·만년필¹¹⁰)·상품권¹¹¹) 등이 사용되었다.

8. 여성의 토론회 참여의 양면성

1920년대 토론회에서 가장 이채로운 부분은 역시 ‘남녀연합토론회’, ‘여자토론회’ 등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여성들이 토론회의 참여 주체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경쟁적 담화 양식으로서의 토론회에서 여성 연사가 등장했다는 사실, 그리고 여성 연사들이 연단에서 남성 연사들과 대등하게 경쟁하는 풍경은 그 자체로서 사회적 변화와 여성 해방의 증표로서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다. 토론회 연단에 선 여성의 모습에 대한 1920년대 초반의 다음과 같은 반응들이 이를 잘 보여준다.

13일 통천소년단 주최 제1회 현상소년토론회 등.

- 107) 1920년 5월 22일 정동예배당 엠피스청년회 주최 남녀연합현상대토론회; 1921년 2월 19일 중앙예배당 엠피스청년회 주최 남녀연합토론회; 1921년 12월 11일 시천교 견지강습소 주최 토론회 등.
- 108) 1922년 4월 8일 능주청년회 주최 전라남도웅변대회/연합토론회; 1923년 1월 25~26일 평양기독교청년회 주최 신년대토론회; 1923년 9월 19일 강서군 신흥예수교회 주최 현상토론회; 1924년 7월 17일 조선여자청년회 토론회; 1925년 2월 1~2일 평양채관리 후진청년회 주최 제3회 전평양소년소녀현상토론회; 1925년 12월 13일 통천소년단 주최 제1회 현상소년토론회; 1927년 4월 29일 동아일보 수원지국 주최 현상토론회 등.
- 109) 1922년 5월 1일 면학동지회 주최 현상토론회; 1923년 2월 28일 운산군 북진유년주일학교 주최 토론회; 1925년 7월 25일 수원 엠피스청년회 주최 제2회 소년소녀현상토론회; 1927년 4월 15일 동대문 엠피스청년회 주최 전서울면려엠피스 남녀현상토론회 등.
- 110) 1927년 4월 15일 동대문 엠피스청년회 주최 전서울면려·엠피스남녀현상토론회.
- 111) 1924년 11월 1일 개성고려청년회 주최 현상토론회.

아 조선에도 여자교육이 점차 발전되야 알 교육회 알 잡지 알 토론회 등의 단순한 여자의 手로 경영하는 기관이 종출하고 …(후략)…¹¹²⁾

과연 그러하다. 조선의 부녀자는 해방하여야 되겠다. 기호 사천년이 나 봉쇄적 생활을 주하던 조선 부녀자도 급야 세계적 사조□(인용자: 식별불능) 지배되어 각기 이십세기의 신생활과 신운명을 개척코자 하는 그들의 분투야말로 오인의 수궁할 점이 심소하다. 일전 청년회관 내에서 개최하였던 남녀연합토론회를 방청한 사가 있다. 십년 전의 왕시를 추구하고 보면 일중 무량한 감개가 발출래함을 금치 못하였다.¹¹³⁾

이러한 상황에서 정마리아, 정종명, 권애라 등 경성 강연계의 스타 연사가 되는 신여성들이 등장¹¹⁴⁾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인기 연사의 사례를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토론회가 여성교육의 수단 중 하나로 사고¹¹⁵⁾되고, 실제 남녀연합토론회, 여자토론회의 성행으로 토론회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적 공간으로 열림에 따라 “규중 부녀”¹¹⁶⁾, “프로 여성”¹¹⁷⁾, “육십 노인”¹¹⁸⁾ 등의 하위주체에 가까운 여성들

112) 청오, 『여자계에 대하여』, 『조선일보』, 1920.6.30.

113) 『여력』, 『조선일보』, 1921.2.28.

114) 특히 정마리아는 1920년대 토론회 개최 기록에서 연사로 총 10회 등장하는 등, 유명 연사로서 많은 활약을 펼친다. 정마리아는 1930년 11월 18일 동대문예배당 앵위스청년회 주최 토론회에서 심판원으로 참가하기도 하는데, 이는 그가 토론의 권위자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115) 가령 다음과 같은 기사에서 토론회는 여성 교육의 다른 수단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여성 교육의 수단, 혹은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수단으로서 사고된다. “전남 화순군은 여자 교육이 무하던 바 …(중략)… 가정의 개조와 여자의 교육이 급무인 취지로 토론회를 개하고 장시간 열변을 토한 후 폐회하였는데 침원의 환영이 성대하였으며 이후로는 전일 수구한 여자가 교육이 선무됨을 각성하고 일장 토론에 일면 교육열이 팽창하였다 하더라”(『여자토론에 교육발전』, 『조선일보』, 1923.3.29)

116) 『시수지건고』, 『동아일보』, 1926.4.7. 1926년 3월 31일 웅기 예수교부인회 주최 여자토론회에 대한 소감 기사로, 연사 대부분이 “규중 부녀”로서 연설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었다고 언급된다.

117) 『대성황의 통영특별토론』, 『조선일보』, 1926.2.19.

까지도 크고 작은 토론회에 연사로, 그리고 청중으로 참여하곤 했다. “무산소녀의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작은 야학에서 매주 일요일 밤마다 “토론회”를 열어 이들의 “지식을 상호교환”하는 자리가 마련되는가 하면¹¹⁹⁾, 또 다른 부인야학에서는 한 여성 연사가 “영아를” 업고 “등단하여 쾌활하게 토론”¹²⁰⁾하는 인상적인 광경을 볼 수 있기도 하다. 실제로 육아의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여성들의 경우, <그림 7> 우측 하단 어린이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아이를 대동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에서 하위주체 여성을 포함한 당대의 여성들이 토론회에 대해 가졌던 관심과 열망을 짐작해볼 수 있다.



그림 7. 1925년 2월 5일 조선 여자청년회 주최 토론회 사진(『동아일보』, 1925.2.7)

앞서 언급했듯이 여성이 연사로 참가하는 토론회의 경우에는 여성 관련 주제, 이를테면 남녀평등이나 여성교육의 필요성 같은 주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았으며, 혹은 남성-여성이라는 대립쌍을 설정하여 여성의 사회적 책임이나 역할을 남성과 비교하여 논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남성-여성의 대립쌍에 기반한 이러한 주제가 그 선정성 때문에 매우 인기가 높았던 토론 주제라는 점에 기인한다. 하지만 여성들이 참여한 토론회에서 다룬 이러한 주제를 통해, 남녀동등권 확보나 여성교육의 필요성, 여성의 역할이나 역량에 관한 급진적인 담론들이 여성 연사들에 의해 발화될 수 있었다는 점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늘까지 남자는 여자를 약함으로 보호인도 하고 가르쳐 왔다 하나,
사실이지 우리 조선 남자가 무엇 그같이 우리 여자의 가르칠 밑천이 있

118) 『신창의법토론』, 『조선일보』, 1929.3.16. 속론 연사로 참여한 경우로 판단된다.

119) 『이씨의 교육열』, 『동아일보』, 1924.12.29.

120) 『부인토론회의 성황』, 『조선일보』, 1923.1.12.

으며 보호할 기운이 있는가요. …(중략)… 사천년 동안을 우리 여자의 보호를 도리어 받아왔을 따름이라 …(중략)… 남자는 아침 여덟시나 되도록 금침 속에서 꿈을 깨지 못하는 일이 많은데 우리 여자는 엄동설한에 모진 추위를 무릅쓰고 6-7월 뜨거운 염서를 돌아보지 않고 노동하고 애써 일하여 남자를 보호하여 왔습니다.¹²¹⁾

요사이 어느 강연회나 토론회에 가보면 여자동등을 제일 많이 주장하나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대비인하나다. 동등이라 하면 우리가 그들 모범하여야 할 터인데 남자가 과연 모범할 일을 하였는가요.¹²²⁾

다른 한편 이러한 남녀연합토론회 혹은 여자토론회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여성 청중들의 집단적 반응과 의사를 표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여자토론회 중에서는 청중들이 여성으로 제한된 토론회도 존재하였으며, 또한 위의 <그림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토론회장 객석이 남성석과 여성석으로 분리되는 경우도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8>과 같이 1920년대 토론회



그림 8. 1927년 10월 20일 근우회 토론회(『매일신보』, 1927. 10.22) 이 행사의 청중은 여성 300명이었다.

는 당대 여성들에게 주어진 일종의 ‘집회’ 공간으로서, 토론 주제 및 연사들의 발화 내용에 대한 여성 청중들의 집단적 반응 및 의사가 표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공간이었다. 실제로 남녀연합토론회에서 토론 내

121) 『남녀가부편의 대토론』, 『매일신보』, 1921.7.4. 1921년 7월 2일 중앙여자엠프스 청년회 주최 남녀연합토론회의 가편 연사를 맡은 김영준, 정종명, 윤진도(모두 여성)의 발화를 요약 보도한 내용이다. 이날 토론의 주제는 ‘남녀동권을 실현치 못함은 남자의 결점이나 여자의 결점이나’였다.

122) 『부인강연회 작일청년회관에서』, 『조선일보』, 1920.6.27. 1920년 6월 26일 유민회 주최 부인강연회에서 손메리가 최근의 토론회 내용을 인용하며 발화한 내용을 옮긴 것이다.

용에 대한 남성석과 여성석의 반응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대구부 남산정 교회 내 기독교청년면려회에서 …(중략)… 토론회를 개최하고 남녀동등이 가호아 부호아라는 제하에 …(중략)… 대논전이 유행한 바, 남자석에서 남녀동등이 부라 하며 기도를 토하는 동시 여자석에서 김성매 여사가 기립하여 何故로 남녀동등이 부라 하느냐 하며 맹시를 사하여 일대 긴장한 활극을 정하였다. 박용조 목사와 백남극 집사의 심판으로 무승부 판결되고…(하략)…¹²³⁾

이처럼 1920년대 토론회는 교육받은 신여성들 뿐만 아니라 하위주체 여성까지를 포함한 당대 여성 대중들에게 주어진 보기 드문 공적 공간으로서, 여성 문제를 비롯한 여러 이슈들에 대해 여성들 스스로 발화하고, 그에 대한 여성들의 집단적 반응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1920년대의 토론회-강연회도 마찬가지로이지만-는, 토론회 참여를 통해 공적 공간에 가시화된 여성들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동시에 표출되었던 공간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진 것이기도 하였다. 토론회장의 미소지니(misogyny)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현상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우선 토론회장의 연단을 통해 가시화된 신체는 그 자체로 하나의 구경거리로서 남성적 시선에 의해 대상화되는 경향이 있었음을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 연사의 토론 내용이 발화의 질적 수준보다는 여성 연사의 신체적 특징과 결부되어 이해되고 평가되는 모습도 보인다. 1924년 7월 5일 조선여자교육협회 토론에 대한 다음의 사후적 논평이 그 예이다.

정마리아 여사의 말은 실로 활발한 듯 하였으나 얼굴에 주름살이 많은 까닭인지 말에도 주름살이 많았다. …(중략)… 박원희 여사의 말은

123) 『기독교청년면려회토론』, 『동아일보』, 1922.7.3.

참으로 뜨거웠다. 그러나 우는 듯한 화상에 몸 울리는 모양이 보기 싫었다.¹²⁴⁾

때때로 토론회의 여성 연사는 스캔들의 대상이 되어, 청중들로부터 직접적인 인신 공격을 당하기도 했다. ‘여자단발 문제의 가부’라는 선정적 주제를 다룬 1926년 1월 19일 동광청년회 토론회에서 당대 유명 여성 연사였던 권애라(<그림 9>)가 당한 공격이 대표적이다.



그림 9. 당대의 문제적 여성 연사였던 권애라(『동아일보』, 1925.10.11)

부편 연사인 권애라 씨가 단에 올라 단발이 옳치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대개 조선의 여성이 단발하는 것은 그 품행과 소행에 있어서 조선의 미풍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의미의 말을 하자 청중으로부터 그렇지 않다는 공격과 일기 시작하여 일대 수라장을 이루게 되매 권씨는 일단 토론을 중지하고 단에 내려갔다 다시 올라 토론을 계속하게 되었으나 격앙한 청중은 역시 분노를 참지 못하여 각각으로 형세가 험악하여 갔음으로 소관 종로서에서는 5, 6명의 정복 순사를 증파한 후 장내를 엄중하게 경계하였었는데 이와 같이 장내가 어지러운 채 토론은 그대로 진행되어 동 9시 40분 경에 폐회하였더라.¹²⁵⁾

이 기사는 “5, 6명의 정복 순사”가 급히 증파될 정도로 큰 소동이 벌어졌던 이 토론회의 광경을 정확하게 그리고 있지는 않다. 이 날의 행사에서 권애라에 대한 청중의 공격은 단순히 야유 수준이 아니라, “‘벗나무’ 몽둥이를 들고 사회자와 부편 연사에게 위해”¹²⁶⁾를 가하려는 물리적 폭력을 동반한 것이었고, 그 결과 청중 2명이 검속되기도 했다. 또한 청중들의 이러한 맹렬한 공격은 단순히, 단발을 반대한 그의 토론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권애라에 대한 청중들의 비난의 핵심은 권애라의

124) 『잔소리』, 『조선일보』, 1924.7.5.

125) 『토론회장이 수라장』, 『조선일보』, 1926.1.21.

126) 『청년 이명 검속』, 『조선일보』, 1926.1.21.

말이 아니라, 그러한 말을 하는 권애라의 자격, 즉 “조선의 미풍상 관계를 논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논의한다”¹²⁷⁾는 점에 있었다. 다시 말해 권애라가 이러한 격렬한 비난을 받았던 것은 “개성 난봉가와 연애 문제로 여자계에 문제가 되어 오던”¹²⁸⁾ 자신의 스캔들¹²⁹⁾ 때문이었다.

127) 『휴지통』, 『동아일보』, 1926.1.24.

128) 『강연회의 대풍파』, 『조선일보』, 1923.1.14.

129) 권애라의 스캔들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그녀가 강연회장에서 ‘기생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다. 권애라는 1920년 5월 22일 정동예배당 앰위스청년회 주최 남녀연합현상대토론회에서 1등상을 수상하며 유명해졌는데, 이때 흥미로운 점은 권애라가 1등상을 탄 결정적 이유가 연단에서 3·1 운동 당시 자신의 옥중 체험을 소재로 한 ‘노래’를 불렀기 때문이었다는 점이다.(『토론회성적』, 『동아일보』, 1920.5.24) 그 뒤 권애라는 경성의 유명 연사로 강연회 등에서 많은 활약을 보이지만, 그 뒤 여러 사정으로 한동안 상해 등지를 외유하며 경성을 떠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권애라 여사의 최근 생활』(1), 『동아일보』, 1925.1.0.11) 사단이 생긴 것은 그가 다시 경성으로 돌아온 뒤인 1922년 10월 14일 여자고학생상조회 강연회에서였다. 권애라의 강연이 임석경관에 의해 중지당하자, 그가 ‘개성 난봉가’를 부른 뒤, 큰 박수 갈채 아래 재청을 받아 “감옥에 있을 때 같이 있던 기생에게 배웠다는 『고고천변일륜홍』이란 단가”를 부르자, “청중으로부터 난데 없는 “기생이나 학생이나”라는 필박이 이곳 저곳서 빗발치듯 쏟아졌던 것이다. (『권애라 여사의 최근 생활』(1), 앞의 글) 박진영이 지적하고 있듯이, 1922년의 강연회에서 부른 <개성 난봉가>와 1920년의 토론회에서 부른 노래는 그 가사로 짐작할 때 동일한 노래로 보인다.(『파란만장 권애라 여사 청춘기』(6), 네이버 블로그 <반겨들충이 한무릎공부>(https://blog.naver.com/bookgram/120150641202), 2012.1.24, 2023.8.10 검색) 따라서 권애라가 1920년의 토론회에서 불렀던 노래는 실은 감옥에서 기생에게 배운 노래를 개사한 것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난봉가>가 1920년의 토론회와 1922년의 강연회에서 모두 호평을 받았던 것과 달리, <고고천변일륜홍>이라는 진짜 기생의 노래를 부르자마자, 권애라가 큰 비난을 받았다는 점이다. 신지영은 이러한 맥락에서 당대 강연·토론의 연단을 통해 가시화되던 여성 연사의 신체 이미지가 당대 경쟁하던 ‘여학생’과 ‘기생’의 신체 이미지 사이에서 불안하게 왕복하며 그 권위를 의심받았던 당대 여성 연사의 난경을 읽어낸다.(신지영, 앞의 책, 190-196쪽) 동시에 이는 권애라가 <개성 난봉가>를 통해 환기할 수 있었던 식민지 대중의 민족적 파토스가 기생이라는 여성 하위주체를 배제한 상태에서 형성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한다. 한편 권애라의 또 다른 스캔들은 “아내가 있고 유치원에 다니는 커다란 아들까지”(『권애라 여사의 최근 생활』(2), 『동아일보』, 1925.10.13) 있었던 독립운동가 이병철

토론회장의 미소지니는 때때로 연사 개인을 넘어 여성 전체에 대한 혐오와 공격의 형태로 발현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1923년 4월 6일 조선 여자청년회 주최 여자현상토론회의 속론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눈여겨 볼 수 있다.

어느 여자만 하는 토론회에서는 “결혼의 요소는 지식인가 금전인가”라는 주제로 장차 시집을 가려는 처녀들의 열변이 끝나자 사회자가 “속론”을 허락한 즉 어떠한 남자가 단에 올라서 “방금 이 자리에서 지식을 주장한 어느 처녀에게도 금강석만 바치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의미로 논박을 하며 계집 아해가 많이 모인 편에서는 “저 놈 죽이어라”하는 소리가 추상같이 일어나고 사나이 모인 곳에서는 “옳다 네 말이 사실이다”하여 흐지부지 중에 폐회하였다든가, 처녀의 신분에 결혼 문제를 연단에서 말하는 것이 옳다는 자리에 무슨 소리는 못할 것이 무엇일까? “금강석” 타령으로 공중의 앞에서 면박을 준 남자의 수작은 너무 심하였지만 이 소리를 듣고 분개하는 계집애들도 뻔뻔한 일이라 함은 방청자의 감상¹³⁰⁾

과의 연애 및 결혼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스캔들에 시달리던 권애라가 청중들에게 비난 혹은 공격 당한 것은 1926년의 토론회 뿐만은 아니다. 1923년 1월 13일 서울청년회 주최 강연회에서 ‘연애의 자유’에 대한 강연자로 출연한 권애라는 역시 청중들의 공격을 당했는데, 당시의 정황은 “일반 군중은 권애라의 소행을 말하고 또는 부정여자니 무엇이나 하며 물 끓듯이 요란하여 그는 연단에 네 번 나왔으나 그만 연설을 하지 못하였으며 군중은 한 시간 이상을 권애라에 대하여 훼방을 하고 욕을 하고 야단을 하였는데 조선에 처음 보는 이상한 현상”(『연애는 자유』이나 언론은 부자유, 『동아일보』, 1923.1.14)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역으로 이러한 스캔들 때문에, 권애라는 당대 강연·토론계에서 그 이름을 통해 청중 동원이 가능한 연사로 여겨진 듯한 흔적도 보인다. 이를테면 위의 강연회에서 “권애라 양의 연설을 듣고자 하여 몰밀듯 들어 닥치는 청중들”(『강연회의 대풍파』, 『조선일보』, 1923.1.14)의 모습이 묘사되기도 하며, 또한 1926년 동광청년회 토론회의 경우, 토론회 개최 소식을 안내하는 기사의 부제에 “권애라 여사도 출연”한다는 부제가 붙어 있기도 하다.(『여자의 단발이 가하나 부하나』, 『조선일보』, 1926.1.19)

130) 『휴지통』, 『동아일보』, 1923.4.6.

이러한 사례에서 앞서 이야기했던 바, 청중들의 집단적 반응이 젠더화된 형태로 나타나 서로 대립하는 모습과 함께, 여성의 성을 언제든 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미소지니가 여성 연사의 발화에 대한 공격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광경을 볼 수 있다. 바로 미소지니에 기반한 남성 청중들의 이러한 공격 때문에, 앞서 언급했듯이 조선여자청년회가 주최한 이후의 토론회에서는 속론을 여성에게만 허가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즉, 이러한 공격적 연사가 여성 연사 및 청중에게 실질적 위협이 되었으며, 여성이 참여하는 일부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여성 연사 및 청중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한편 위의 인용에서 또 한 가지 눈여겨 볼 것은 논평자가 ‘처녀의 신분’, 즉 젊은 미혼 여성이 ‘결혼 문제’에 대해 연단에 서서 공공연하게 말하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는 여성의 토론회·강연회 참여라는 당대의 현상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는 남성들의 보수적 시선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음의 기사는 1920년대 강연·토론회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현상 및 특히 토론회에서 발화되는 남녀평등 혹은 여성 해방의 외침에 대한 경계심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조선 여자가 가끔 남녀평등을 입에 침이 마르게 부른다 ▲그러나 잠깐 쉬이시는것이 어떨지 기 근대 강연회장의모양은 천오백 대삼십오가 여자 청중 ▲이만해서도 모르신다 하면 향수를 뿌리시고 손가방을 드시고 청년회에 열리는 이혼이나 결혼토론회나 그렇지 않으면 음악회 구경을 하신 후에 다시 말씀합시다.¹³¹⁾

이러한 조롱의 조금 더 진지한 버전은 당대 강연·토론회의 저열한 수준 및 상업성을 문제삼으며, 여성 연사의 출현을 토론회 주최 측의 상

131) 『휴지통』, 『동아일보』, 1924.9.24.

업적 술책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연단을 통해 가시화되는 여성 연사의 신체를 성적으로 대상화하며, 다시 이에 화폐와 교환되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이미지, 즉 ‘기생’에 가까운 이미지를 덧씌우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다음과 같은 논평이 대표적이다.

구역이 나는 것은 소위 남녀연합강연회이나 토론회이다. 그 토론회나 강연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소위 연사라는 인물은 남의 강연에 가서 강연을 들을만한 상식도 갖지 못한 남녀가 많은데, 이와 같은 강연회를 약을 쓰고 주최하는 자의 심사는 더욱히 알 수가 없고 계집 아해를 데려다가 연단 우에 세우고 얼굴 자랑이나 하여 십 전 이십 전의 돈을 모으려 함이 아닌가 의심된다. 이와 같은 의심이 사실이라 하면 소위 연단 위에 선 트레머리 여자나 요리집에서 장구치고 소리하는 여자나 그 상거가 얼마나 될까.¹³²⁾

토론회장의 미소지니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1920년대 토론회에 있어 수많은 여성들이 연사와 청중으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의 승패 및 연설의 우수성을 판정하는 ‘심판원’은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1920년대 토론 문화에서 ‘심판원’은 대체로 토론회의 연사들보다 지적 위계에서 조금 더 높은 수준에 있다고 인정받는 인물들로 구성되었는데, 정마리아와 같은 여성 유명 연사가 토론회의 심판원으로 참여한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면, 여자토론회를 포함한 1920년대 토론회의 심판원은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되었다.

때문에 1920년대 여자토론회나 남녀연합토론회의 경우, 토론은 여성이 혹은 여성도 하되, 그 결과는 권위있는 남성이 판정했다. 때문에 때때로 토론의 승패에 대한 판정은 권위있는 남성에게 의해 여성들에게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성 역할과 기능을 다시금 강조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 관련하여 신중하게 관찰해 볼 수 있는 사례는 1923년 6월 23일 여수 코

132) 『휴지통』, 『동아일보』, 1923.4.11.

스모스회 토론회의 경우이다. “여수 부녀계의 유일기관”인 코스모스회의 이날 토론회는 연사 이름에 ‘황또녀, 박새방’과 같은 이름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구여성 중심의 토론회였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에 걸맞게 토론의 주제 또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불화는 그 잘못이 시어머니에게 있느냐? 며느리에게 있느냐?’였다. 이때 토론의 심판원을 맡은 “부녀 야학회 선생 김백평”은 며느리 편을 승리, 즉 그러한 불화의 원인이 며느리의 잘못에 있다는 입장이 승리했다고 선언했다.¹³³⁾ 신중하게 보아야 할 문제이지만, 이러한 사례에 있어 남성 심판원의 권위적인 판정이 토론의 내용과 관계없이 토론에 참여한 여성들을 다시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이념과 질서 속으로 돌려보내는 기능을 수행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9. 결론

이상 이 글은 신문보도자료를 중심으로 1920년대 토론회의 발생 배경, 양적 분포, 참여 주체 및 토론회의 유형 등을 살피며 1920년대 토론회 문화를 특히 그 배경과 주체라는 관점에서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이 글에서는 당대 토론회 문화의 실상을 재구성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이 시기 토론회를 식민지 대중미디어라는 관점으로 의미화하려고 했다.

1920년대 토론회는 기본적으로 청년회 운동을 비롯하여 3·1 운동 이후 변화한 공론장의 상황에서 활발히 전개된 대중 운동 사업의 일환으로서 1920년대 식민지 조선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게 개최되었다. 1920년대 토론회는 한편으로 기독교청년회 등을 통해 계승되어 왔던 개화기 토론회의 전통을 계승하였으며, 경성 등 대도시에 있어서는 대형 미디어 이벤트로서 상업화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133) 『코스모스회 토론』, 『동아일보』, 1923.6.29.

그럼에도 1920년대 토론회는 무산자, 여성 등 다양한 식민지 하위주체-대중들에 의해 전유된 식민지 대중미디어이기도 했다. 1920년대 토론회의 연단은 식민지 대중들에게 광범위하게 열려 있었으며, 속론과 같은 토론회의 몇몇 특징적 절차들은 토론회를 문화적 서열의 아래쪽에 놓여 있는 식민지 대중들이 자신의 견해를 공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매우 보기 드문 대중미디어로 만들었다.

또한 1920년대의 토론회의 청중은 수동적인 계몽의 대상에 머물지 않았다. 토론회의 청중은 연사의 권위를 빈번하게 의심하며, 다양한 방식을 통해 토론 내용과 토론 진행 방식에 대한 자신들의 집단적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다. 이 시기 토론회에서 청중과 연사·주최자·임석경 관으로 대표되는 식민권력과의 갈등 및 이로 인한 소요는 일상적인 것이었으며, 토론회의 이러한 소요는 엘리트와 대중의 지적 격차에 근거한 근대적 계몽의 구조를 지속적으로 전복시키며, 식민지 하위주체-대중들의 집단적인 생각과 의사, 감정 등을 노출시킨다. 이러한 점에서 1920년대 토론회는 식민지의 하위주체 대중들에게 그들 스스로를 교육·교양하는 형식이자, 그들의 집단적 의사와 감정, 앓 등을 표출할 수 있는 대중미디어로서 활용될 수 있었다.

한편 1920년대 토론회의 다양한 유형은 이 시기 토론회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보여준다. 이때 특히 남녀연합토론회, 여자토론회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여성의 토론회 참여는 이 시기 여성이 공적 담론장에 개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었으며, 또한 이 시기 토론회에서는 여성의 역할과 역량 등에 대한 급진적 발화도 수행될 수 있었다. 동시에 당대 토론회는 여성들의 집회 공간으로서, 여성 청중석에서 형성되는 여성들의 집단적 반응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다. 하지만 당대 토론회에 참여한 여성들이 미소지니에 기반한 여러 형태의 공격과 비난을 감수했어야 했다는 점에서 여성의 이러한 토론회 참여는 양면성을 가진 것이기도 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점들에서, 대단히 정치적이었던 개화기의 근대 토론 문화가 타락하거나 퇴화한 것으로 이해되어왔던 1920년대 토론회는 이미 19세기말에 조선에 유입된 바 있었던 민주주의적 의사 결정 수단 및 그러한 의사소통 교육의 도구였던 서구식 근대 토론의 이상과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름의 독자적인 의미와 기능을 갖는다. 1920년대 토론회는 식민지 하위주체들 스스로에 의한 교양의 형식으로 전유될 수 있었을 만큼,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대중들에게 광범위하게 열린 매우 보기 드문 대중적 미디어였다. 때문에 1920년대 토론회 문화가 보여준 다양한 면모에 대한 탐구는 식민지 하위주체를 포함한 식민지 대중들이 그 시대의 지배적이고 위계적인 담론과 이념들에 마냥 종속된 존재가 아니었으며, 그들 나름의 주체성을 가진 존재였다는 점을 확인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러한 점에서 1920년대 토론회 문화를 살펴보는 것은, 그 접근의 경로가 대단히 제한되어 있는 1920년대 식민지 대중들의 주체성 및 의식·감정에 접근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1920년대 토론회 문화를 더 면밀하게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이 글에서 주로 사용한 신문자료 이외의 다양한 유형의 자료들을 수합하려는 노력과 함께 이 글에서 검토한 것 이외의 다른 많은 요소들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먼저 식민지 토론회의 형식, 즉 그 규범적 절차 및 절차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식민지적 불일치와 균열들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 1920년대 토론회는 기본적으로 개화기 토론회의 형식에서 그 규범적 절차를 빌려오지만, 식민지라는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세부적으로는 많은 차이가 나타나며, 이러한 차이 때문에 토론회의 규범적 절차는 토론회의 주제 및 그 실제 실현 과정과 충돌하며 일정한 균열들을 생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1920년대 토론회의 규범적 절차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내적 불일치의 양상을 관찰하는 것은 ‘식민지 대중미디어’로서의 1920년대 토론회의 식민지적인

성격을 규명하는 데 필수적인 작업인 동시에, 바로 이러한 균열을 통해 역설적으로 가시화되는 1920년대 식민지 조선 대중들의 집단적 의식과 감정을 포착하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토론회의 주제와 실제 토론회에서 발화된 발화 내용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이를테면 이 시기 토론회의 주제로 어떠한 개념들이 빈번하게 동원되었으며, 이러한 개념들이 어떻게 상호 연관되었고,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토론회 현장에서의 실제 발화는 어떠한 내용과 형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토론회에 참여한 식민지 대중들의 심성 체계 및 토론회 주제로 동원된 근대적 개념들에 대한 인식과 판단의 문제를 다루는 데 필수적이며, 동시에 토론회 문화를 통해 형성된 특정한 발화의 양식이 무엇이었으며 다른 담화 양식들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피는 데 필수적이다.

그리고 1920년대 토론회에 대한 검열과 취체의 양상을 살피는 작업도 필요하다. 1920년대 토론회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인 ‘불온성’의 구체적인 성격을 밝히고, 이러한 불온성을 사이에 두고 식민지 치안 권력과 토론회의 주체들이 어떠한 경합을 벌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토론회와 관련한 기억과 회고 및 사후적 재현들을 살피는 작업도 필요한데, 이는 1920년대의 토론회가 어떠한 전통으로 기억되며, 토론회에 참여한 개별 주체들에게 어떠한 의미와 효과를 남겼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이 글은 무엇보다도 학술지 논문의 분량 문제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까지 함께 다루지는 못하였다. 1920년대 토론회의 재구성을 위한 남은 문제들은 후일의 논의들을 기약하기로 하며, 이 글은 이러한 후속 논의를 위한 토대를 제시했다는 점 정도에서 그 최소한의 의의를 찾으려고 한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 『京城日報』, 『朝鮮新聞』, 『대한매일신보』, 『동아일보』, 『매일신보』, 『시대일보』, 『조선일보』, 『황성신문』, 『중외일보』
- 『學生風紀問題討論會開催狀況の件』(京鍾警高秘 10179), 『思想ニ關スル情報綴』 第7冊, 1930.07.04.
- 『集會取締 狀況報告(通報)』(京鍾警高秘 第14144號), 『思想に關スル情報』 1, 1931.11.18.
- 안국선, 『연설법방』, 탐인사, 1907.
- 전영택, 『생명의 봄』 2회, 『창조』 6, 1920.5.
- 현병주 편, 『시사강연록』 제5집, 광문사, 1922.
- _____, 『연합현상남녀토론집』, 광문사·우문관서회, 1927.
- _____, 『남녀연합토론집』 (4판), 광문사, 1928.

2. 단행본

- 권영민, 『서사양식과 담론의 근대성』,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 박철하, 『청년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2009.
- 신용하, 『독립협회 연구』, 일조각, 1976.
- 신지영, 『부/재의 시대』, 소명출판, 2012.
- 전영우, 『한국근대토론의 사적 연구』, 일지사, 1991.
- 전택부, 『이상재 평전』(전자책), 범우사, 2013.
- 최남선, 『육당 최남선 전집』 10권, 현암사, 1974.

3. 논문

- 권용선, 『1910년대 근대적 글쓰기의 형성과정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2004.

류충희, 「개화기 조선의 민회 활동과 『의회통용규칙』」, 『동방학지』 16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4, 1-32쪽.

문한별, 「연설의 근대적 서사화 가능성」, 『현대문학이론연구』 48, 현대문학이론학회, 2012, 325-344쪽.

박숙자, 「3·1 운동 이후의 말, 『개벽』과 독자」, 『국어국문학』 202, 국어국문학회, 2023, 85-116쪽.

배정상, 「근대계몽기 토론체 서사의 특질과 그 위상」, 『현대소설연구』 28,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 7-27쪽.

송민호, 「개화계몽시대 ‘연설’과 ‘강연’의 분화와 비정치적 공론장의 배경」, 『한국문화』 55,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1, 197-222쪽.

_____, 「일제강점기 미디어로서의 강연회의 형성과 불온한 지식의 탄생」, 『한국학연구』 32,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4, 125-154쪽.

_____, 「연설하는 목소리의 서사화」, 『한국학논집』 69,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7, 205-233쪽.

_____, 「자유의 종소리와 계몽의 들림」, 『민족문화사연구』 70, 민족문화사연구소, 2019, 9-35쪽.

유승환, 「1923년의 최서해」, 『한국현대문학연구』 52, 한국현대문학회, 2017, 221-264쪽.

이상경, 「『남녀연합토론집-부(附) 여사 강연』과 김일엽의 여성론」, 『여성문학연구』 10, 한국여성문학회, 2003, 345-355쪽.

이승희, 「공공 미디어로서의 극장과 조선민간자본의 문화정치」, 『대동문화연구』 69,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219-259쪽.

이익로, 「『남녀연합토론집』의 문체 특성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이정옥, 「연설의 서사화 전략과 계몽과 설득의 효과」, 『대중서사연구』 17, 대중서사학회, 2007, 151-185쪽.

- _____, 『애국계몽기 연설과 토론의 수용 과정』, 『현대문학이론연구』 43, 현대문학이론학회, 2010, 175-197쪽.
- _____, 『개화기 연설의 ‘근대적 말하기’ 형성과정 연구』, 『시학과언어학』 21, 시학과언어학회, 2011, 221-248쪽.
- _____, 『근대 초기 회의 규범의 수용 과정(1)』, 『한국문학논총』 59, 한국문학회, 2011, 379-409쪽.
- _____, 『근대 초기 연설교육서에 나타난 근대적 말하기 규범』, 『국어국문학』 161, 국어국문학회, 2012, 199-235쪽.
- _____, 『1900년대 후반기 대중연설의 확산과정과 연설문의 양상』, 『서강인문논총』 36,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103-147쪽.
- _____, 『근대 초기 회의 규범의 수용 과정(2)』, 『인문학연구』 47,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4, 466-510쪽.
- _____, 『협성회의 토론 교육과 토론문화의 형성과정』, 『국어국문학』 172, 국어국문학회, 2015, 177-208쪽.
- _____, 『1900년대 연설의 분화와 대중화 과정』, 『서강인문논총』 47,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225-259쪽.
- 이태훈, 『한말 근대정치운동의 확산과 정치연설의 역할』, 『역사문제연구』 27, 역사문제연구소, 2012, 7-32쪽.
- 장연연, 『대중계몽주의자 현병주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홍순애, 『근대소설의 장르분화와 연설의 미디어적 연계성 연구』, 『어문연구』 37(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9, 363-388쪽.
- _____, 『근대소설의 형성과 연설의 미디어적 연계성 연구』, 『현대소설연구』 42, 한국현대소설학회, 2009, 599-626쪽.

4. 기타

<반겨들충이 한무릎공부>(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bookgram>) 2023년 8월 10일 검색.

<Abstract>

Cultural History of Debating Society in the 1920s*

- The Background and Subject of the 1920s Debating
Society as a Colonial Media for the People

Yoo, Sung-Hwan**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reconstruct the culture of debates in colonial Joseon society in the 1920s, focusing on a list of records of debating society held in the 1920s and 1930s constructed based on newspaper press releases. And as part of a continuous attempt to make meaning of the debate culture of the 1920s as a colonial mass media, this article attempted to identify the background and subject of the debate culture of the 1920s and the general format of the debate society of the 1920s. The debating society of the 1920s has not received enough attention. This is mainly because the importance of the debate culture of the 1920s was underestimated in a situation where political debate was blocked after 1908. However, the debating society in the 1920s was one of the main programs of the youth movement that emerged in the new social atmosphere after the March 1st Movement, and was a subversive event where people at the bottom of the social hierarchy could speak directly and express their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1S1A5A8071303).

** University of Seoul.

collective emotions. It was also a space of disturbance. In this respect, the debates of the 1920s were an influential media given to the people during the colonial period. In fact, the types of debates in the 1920s were diverse in terms of participants. Therefore, the participation of poor workers and women in debates was a characteristic phenomenon in the debating society culture of this period. In this respect, the debating society was appropriated by the subalterns of colonial Joseon as a form of culture and education, and as an opportunity to form and confirm collective opinions and emotions. In this respect, study on debating society culture can be an important way to approach the subjectivity, consciousness, and emotions of colonial subalterns in the 1920s.

Key Words: 1920s, Debating Society, March 1st Movement, Youth Movement, Colonial Media for the People

■ 논문접수 : 2024년 03월 31일

■ 심사완료 : 2024년 04월 21일

■ 게재확정 : 2024년 04월 21일

